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과 국내 시장의 발전방향

파생상품연구센터

1 배경

2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환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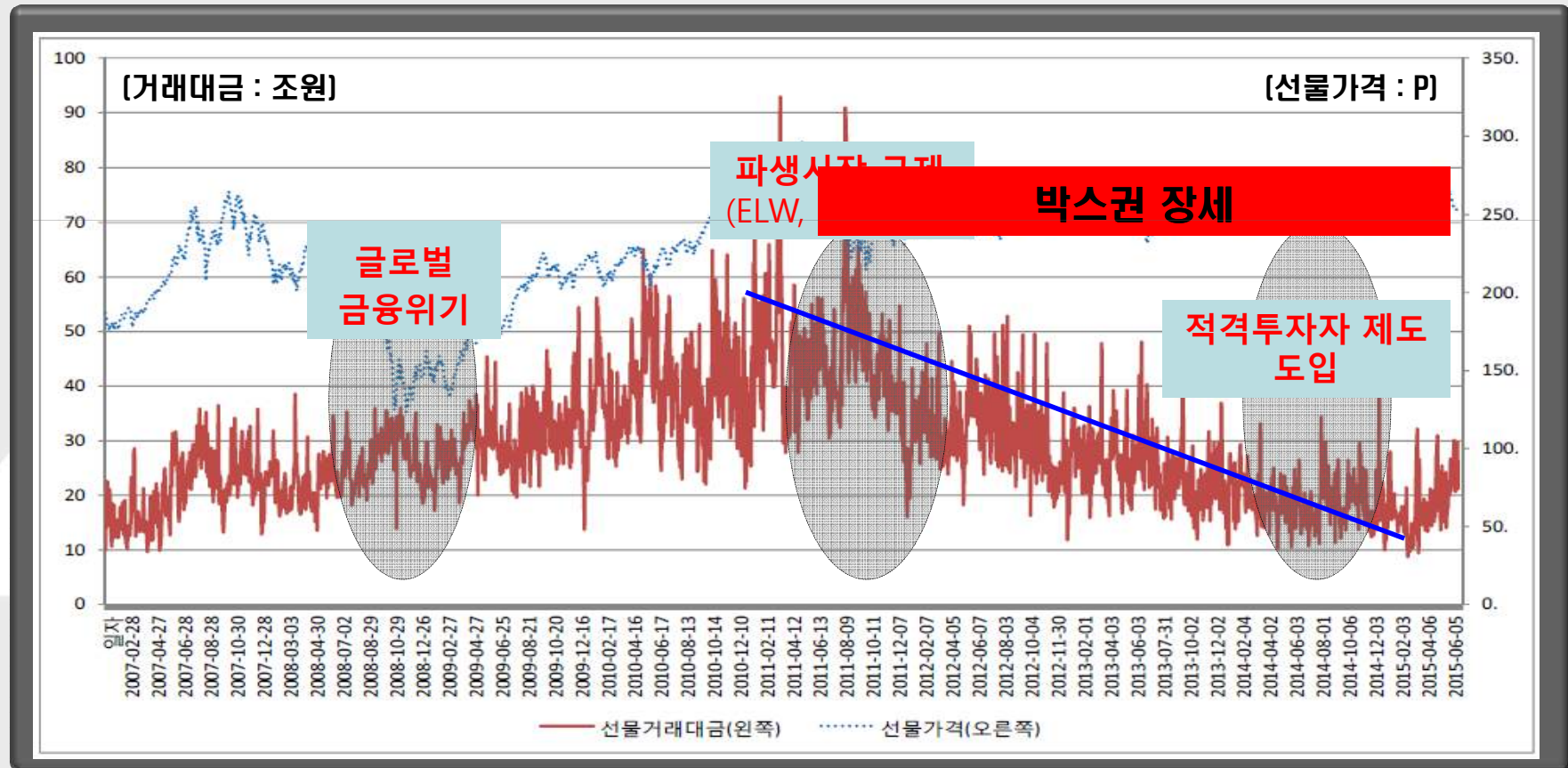
3 파생상품시장의 발전과정

4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
5 국내시장의 발전방향

2011년 이후 KRX 파생상품시장의 지속적인 침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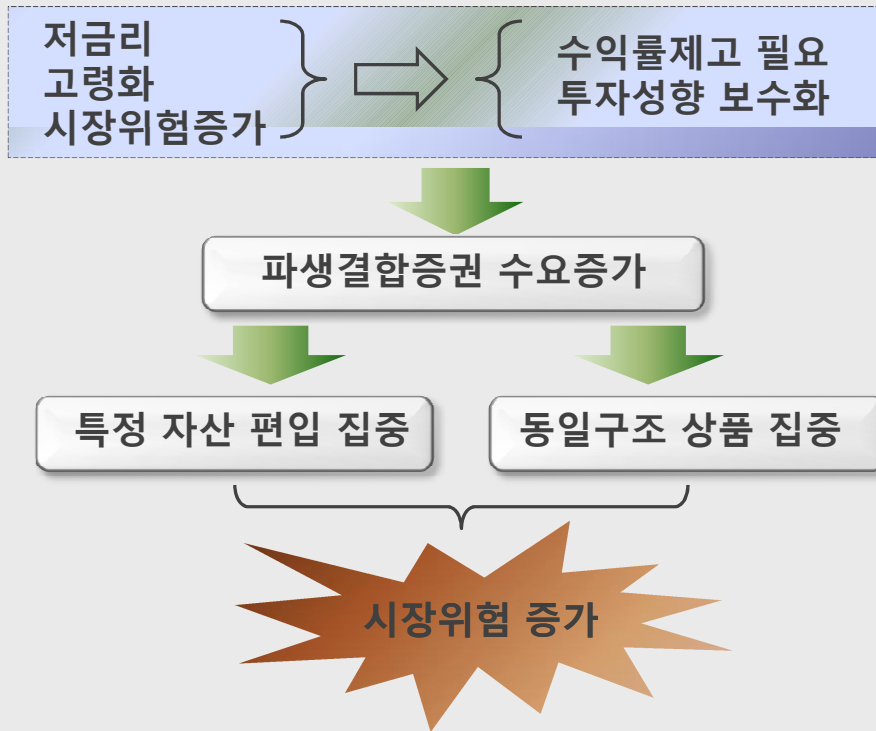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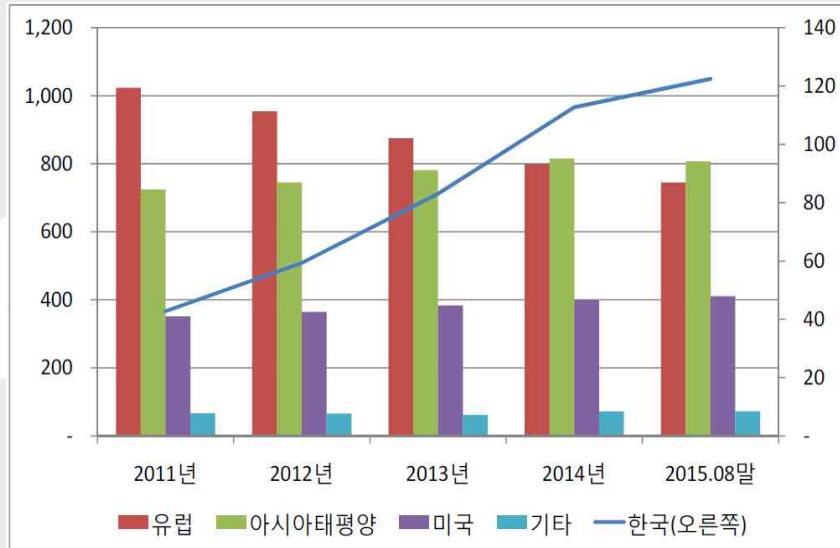
변동성 축소(박스권 장세) + 중복된 진입규제 → 거래대금 지속 감소



최근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증가

- '15년 8월말 글로벌 발행금액 \$2.03조
 - 아시아-태평양이 \$0.81조로 권역 별 가장 큰 비중('11년 대비 11% 증가)
 - 다음으로 유럽 \$0.68조(27% 감소), 미국 \$0.41조(17% 증가)
- '15년 8월말 발행금액 147.3조원 ('11년 말 51.5조원 대비 189% 증가)
 - 글로벌 대비 높은 증가율

【파생결합증권 발행금액】 (단위: 10억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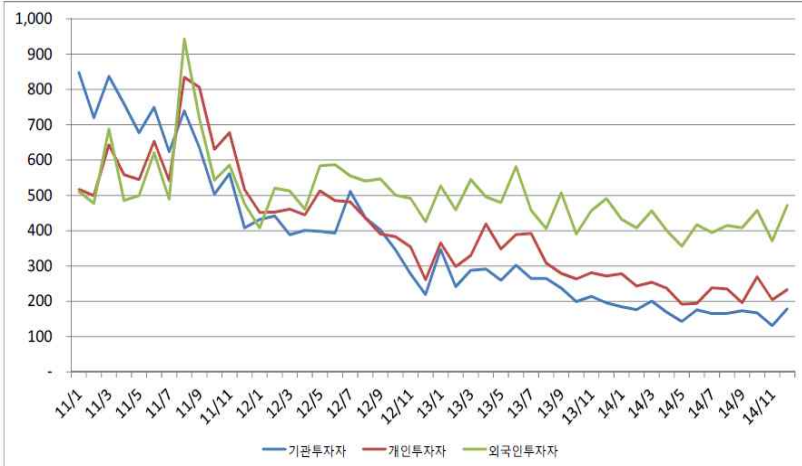


투자자보호정책 강화 ➡ 1. 기관투자자 위축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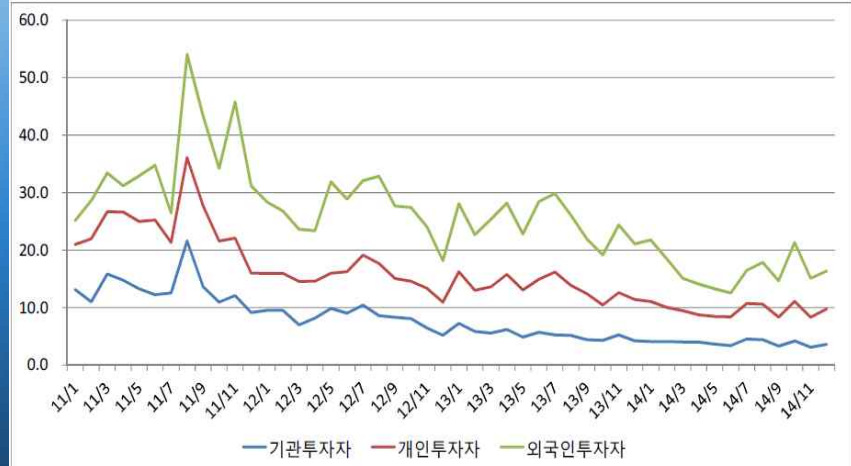
- '11년 옵션 매수전용계좌 폐지 이후 기관, 개인, 외국인투자자 모두 거래 급감
- 특히 개인투자자보다 기관투자자의 거래감소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

구 분	선 물			옵 션		
	개인	기관	외국인	개인	기관	외국인
'11.8월	834.6	739.3	942.9	36.1	21.6	54.0
'14.8월	234.8	165.6	414.4	10.6	4.4	17.9
감소율	-71.9%	-77.6%	-56.1%	-70.6%	-79.5%	-66.9%

<투자자별 월평균 거래대금(선물)> (단위: 조 원)



<투자자별 월평균 거래대금(옵션)> (단위: 조 원)



투자자보호정책 강화 → 2. 투자의 해외유출

- '14년 국내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금액 1,254조 원
→ '11년 347조원 대비 261% 증가
→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거래가 410조원으로 전체의 33.1% 차지
- 같은 기간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은 각각 60% 거래감소
→ 국내시장 매력도 저하와 규제강화, 반면 용이해진 해외시장 접근성이 중요한 원인
※ 일부 개인투자자는 강화된 진입장벽으로 인해 대여계좌 등을 이용하기도 함

<국내투자자의 해외 주가지수 파생상품 연간 거래금액>

(단위: 조원)

구분	2011년(A)	2012년	2013년	2014년(B)	증가율(B/A)
미니선물	31.2	50.6	134.5	222.3	612%
ELS기초자산*	7.0	15.6	29.3	94.7	1,253%
NIKKEI225선물	2.3	2.9	48.5	60.8	2,494%
기타	5.9	15.2	19.3	33.8	468%
합계	46.5	84.3	231.6	411.6	785%

* ELS기초자산은 최근 ELS의 편입자산으로 널리 활용되는 HSCEI, EuroStox50, S&P500 선물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자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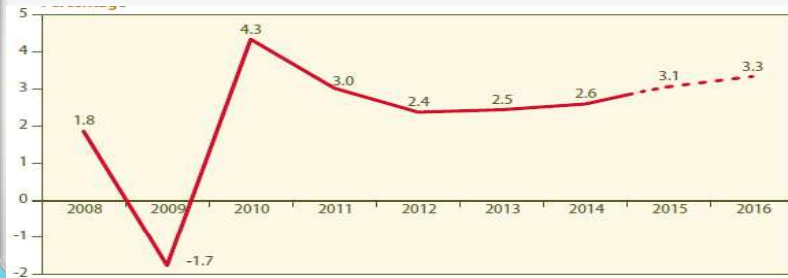
시사점

- 파생상품의 경제적 기능
- KRX 파생상품시장 규제의 적절성
- KRX파생시장의 상품상장 방향

- 1 배경
- 2 **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환경**
- 3 파생상품의 발전과정
- 4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- 5 국내시장의 발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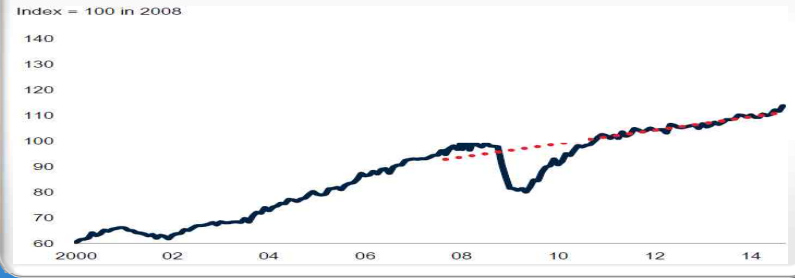
경제성장률(WGP)

- '12년 이후 점진적 증가 '14년 2.6% 기록
-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회복은 완만하게 진행



글로벌교역

- 금융위기 이후 증가경향 일시적 약화
-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라 증가추세 강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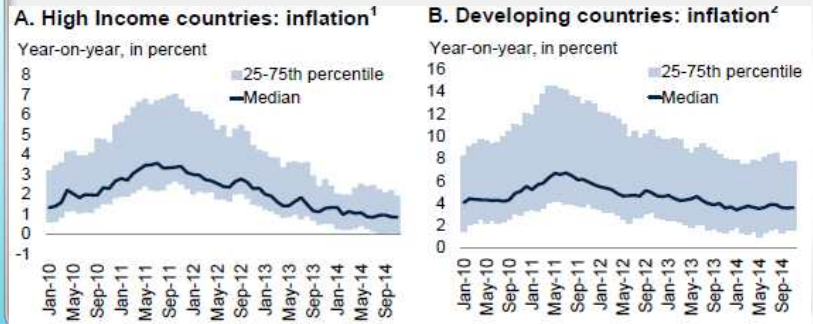
실업률

- 금융위기 이후 전체 적으로 실업률 크게 증가
- 최근 선진국 중심으로 실업률 감소 추세
<미국 실업률 변화>



인플레이션

- '12년 이후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소 경향



MSCI지수

- 2012년 이후 선진국 중심의 점진적인 경기회복
⇒ 선진국 주식시장의 빠른 성장



금리(10년 국채)

- '13년까지 전반적인 금리인하 기조
- 미국 출구전략과 맞물려 서서히 금리인상 경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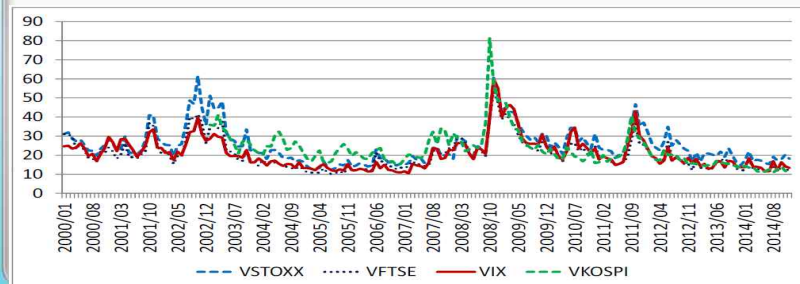
달러지수

- 금융위기 당시 최저수준이던 달러지수는 '10년 이후 최근 4년 단기 고점을 보이며 상승 추세



변동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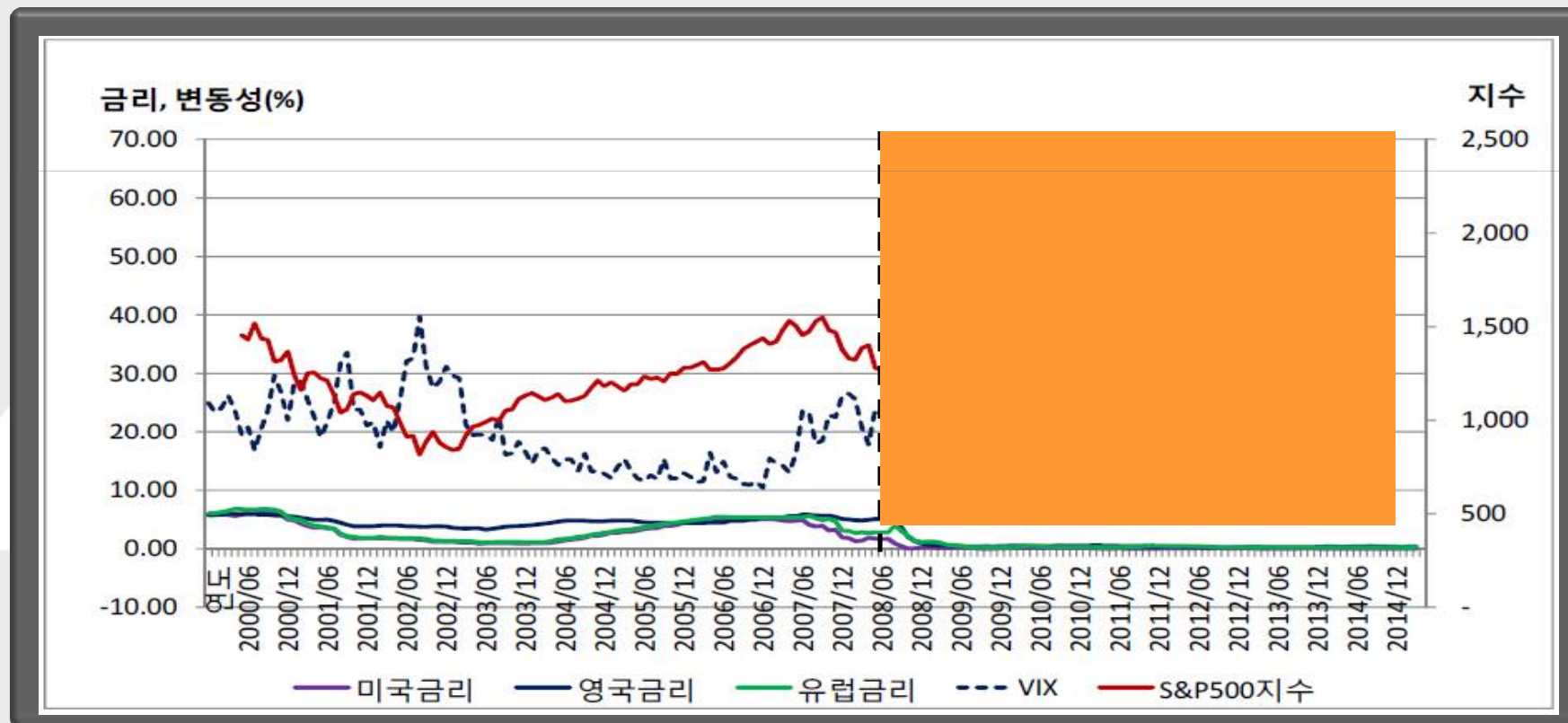
-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변동성 축소, 그러나 거시지표 변화에 따른 국소적 변동성 확대



최근 금융시장의 거시환경 불확실성

◆ 금융위기와 금리

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초 저금리에 진입 ➡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한 시장 가격의 왜곡



최근 금융시장의 거시환경 불확실성

◆ 금리인상과 금융시장 불확실성

<미국 금리인상>

시나리오1(예정)

- 2015년 0.00~0.25% ↑
- 2016년 2.75% ↑

- 개발도상국의 자금유출과 환율변동성 증가

시나리오2(소폭인상)

- 실업률 · 성장률 등 거시지표 회복 둔화
- ⇒ 금리 소폭 인상

- 과도한 유동성에 의한 가격왜곡
- 변동성 증가
-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증가

시나리오3(인상지연)

- 고실업률 · 경제성장둔화
- ⇒ 금리인상 지연

<유럽>

경기회복 불확실성

- 투자의 감소와 고실업률
- 위험수준의 저인플레이션
- ⇒ 일본형 디플레이션으로 전이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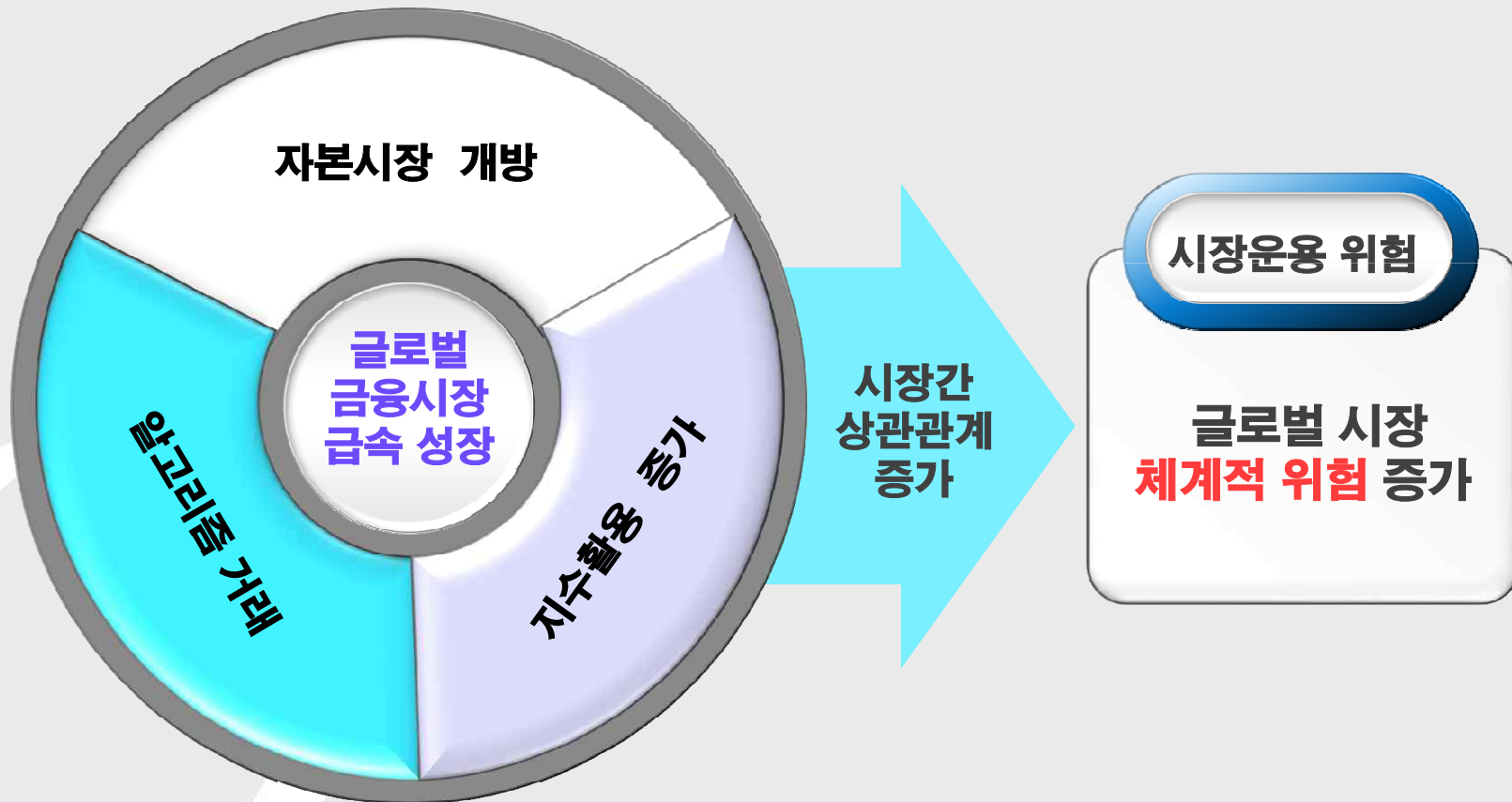
<개발도상국>

실물경제의 활력저하

- 글로벌 성장을 견인한 개도국 성장률 ↓
- 미 금리인상 기대에 따른 시장불확실 ↑
- ⇒ 자금차입비용의 증가로 부채부담 ↑
- ⇒ 캐리 자금 유출과 환율변동성 확장

금융시장
불확실성 지속

글로벌 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



금융시장의 환경은 지속적인 금융혁신 요구

경기 회복

- 선진국중심의 경기회복
→ 저개발국의 불확실성
- 경기회복지연의 경우
→ 세계시장 불확실성증가

달러화 강세

- 금융위기 불구 달러화 위상 견고
- 국가간 환율전쟁 촉발가능

저금리

- 수익률제고 필요성 증가
- 금리인상 불확실성 존재
- 금리인상 시 시장불확실성

금융 시장 불확실성

- 금융의 역할 증가
- 금융시장 구조변화
- 지역적 불확실성 증가

<금융혁신 필요>

- 투자위험관리
- 수익률제고

고령화

- 투자의 보수화
- 펀드의 수요증가
- 선진국 생산·투자감소

인플레이션관리

- 인플레이션 적절히 관리
- 인플레이션증가 시 시장 불확실성 증가

국제교역증가

- 자본시장개방 지속진행
- 금리, 통화 등 금융파생 수요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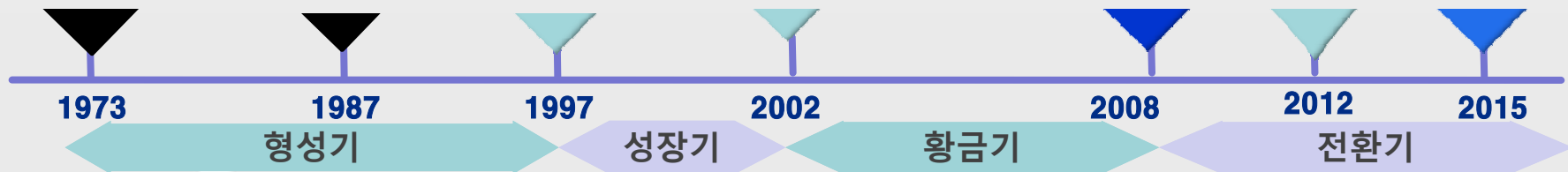
- 1 배경
- 2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환경
- 3 파생상품시장의 발전과정**
- 4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- 5 국내시장의 발전방향

파생상품시장의 발전과정

파생상품 발전과정

- 파생상품은 시장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발전
- 금융위기를 통해 파생상품의 역할 지속적으로 제고

옵션 최초상장



장내	· 개별주식옵션 · 주가지수옵션	· VIX 발표 · ETF상장	· ETF옵션	· VIX선물·옵션, 배당선물 · 시장분할 · 알고리즘거래 급성장	· SPX, VIX binaries · FLEX 확대(CBOE) · Flash Crash와 알고거래규제	
장외	· 고정환율제폐지 금리·외환파생 거래 증가	· CDO첫 거래	· 이색옵션 거래 · 상품구조 복잡	· 글로벌 IB에 의한 급성장 · 신용파생 거래 급증	· 성장정체 · 글로벌 스탠더드·포괄적 규제 도입으로 시장변화	
구조화	· 기관·고액자산가 중심 시장 · 상품연계 채권	· 옵션 편입 → 구조다양화 · 소매상품 발행	· 이색옵션활용 → 유연성강화· 구조복잡화	· 유럽중심 장내화 · 글로벌IB에 의한 시장확대 · ETN 상장	· 저금리환경 투자수단 관심 제고	· 투자자보호 규제논의



- **통화파생상품이 최초 상장되면서 장내파생상품시장 발달**
 - Bretton-Woods체제의 붕괴로 환율변동성 증가 ⇒ '72년 통화선물 상장
 - 거래시스템의 개선 등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
 - 非표준화된 상품의 상장을 통해 장내시장의 영역을 확장하는 노력
- **금리·외환을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 발달**
 - 역외 금융거래의 증가 및 환율변동성의 증가 ⇒ 80년대부터 스왑시장 확대

➡ **· 실수요 중심, 지역 범위의 시장으로 출발**

항 목	내 용
시장환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70년 Bretton-Woods 환율시스템의 붕괴로 환율변동성 증가 · 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금리인하 · '73년 최초의 지수형 뮤추얼펀드, ETF 최초상장(CME('93), 유럽('99)) · 규제완화의 기조 시작
장내파생상품시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파생상품 최초상장(CME, CBOE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통화선물('72, CME), 개별주식옵션('73, CBOE), 주가지수옵션('83, CBOE) · LIFFE('82), EUREX ('88) 오픈 · 장기 및 非표준화된 상품 거래를 위해 LEAPs시장('90, CBOE), FLEX시장('93, CBOE) 도입 · GLOBEX 1차 버전('92, CME), 전자거래시스템('98, EUREX)
장외파생상품시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증가하는 역외거래를 기반으로 장외시장에서는 금리 및 외환 파생상품 거래 · CDO 첫 거래('87, 미국): 회사채, 개발도상국 국채, 은행대출 등 다양한 부채에 대해
구조화상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익구조를 산출하는 구조화상품 등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'91년 영국 소매시장 도입(guaranteed equity bonds, LIFFE) → 90년대 일본에서 조기종료形 구조화상품 출현



- 전통적인 자산에서 신용 및 구조화 금융 등으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과 구조 확대
 -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과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로 펀드의 수요증가
- 규제완화의 흐름 속에서 파생상품시장의 규모 확대
 - Glass-Steagall Act의 폐지로 투자은행 활성화

➡ · 아시아위기, IT버블을 통해 파생상품시장의 역할 증가

항 목	내 용
시장환경	· 低금리·高변동성 · 1997년 아시아 위기, 2002년 IT버블 ·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로 뮤추얼펀드 의 급격한 성장
장내파생상품시장	· ETF선물·옵션 상장(EUREX, CBOE) · 거래량 큰 폭 증가 → '90년 302백만 계약에서 '01년 32억 계약 → '86년 명목잔액 \$0.6조에서 '03년 \$38.2조로 확대 (연평균 27%의 증가속도)
장외파생상품시장	· 이색옵션의 거래증가(디지털 옵션, 장벽옵션 등) → 高변동성 환경에서 장기변동성 관리를 위해 저가의 옵션 필요 → 거래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 · 증가하는 역외금융거래를 통해 금리·통화 관련 스왑·옵션 거래 활발 → '87년 명목잔액 \$0.87조에서 '03년 \$124조로 확대 (연평균 35%의 증가속도)
구조화상품	· 저금리 기조에서 구조화상품 진화 → 이색옵션을 편입하여 상품의 유연성 증가



- **글로벌 IB와 헤지펀드의 급격한 성장으로 파생상품시장 폭발적으로 규모 확대**
 - 글로벌 IB의 활동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호관련성 및 상품구조 고도로 복잡해짐
- **미국·유럽 중심으로 모기지 대출이 크게 증가, 신용파생·구조화금융 고도로 발달**
- **IT의 발달에 의해한 알고리즘거래의 급속한 확산**
 - 거래방식의 급격한 변화 초래, 시장간 거래장벽 완화 및 시장의 유동성 극도로 확장

➡ **파생상품시장 팽창 및 글로벌 시장의 단일시장화 급속 진행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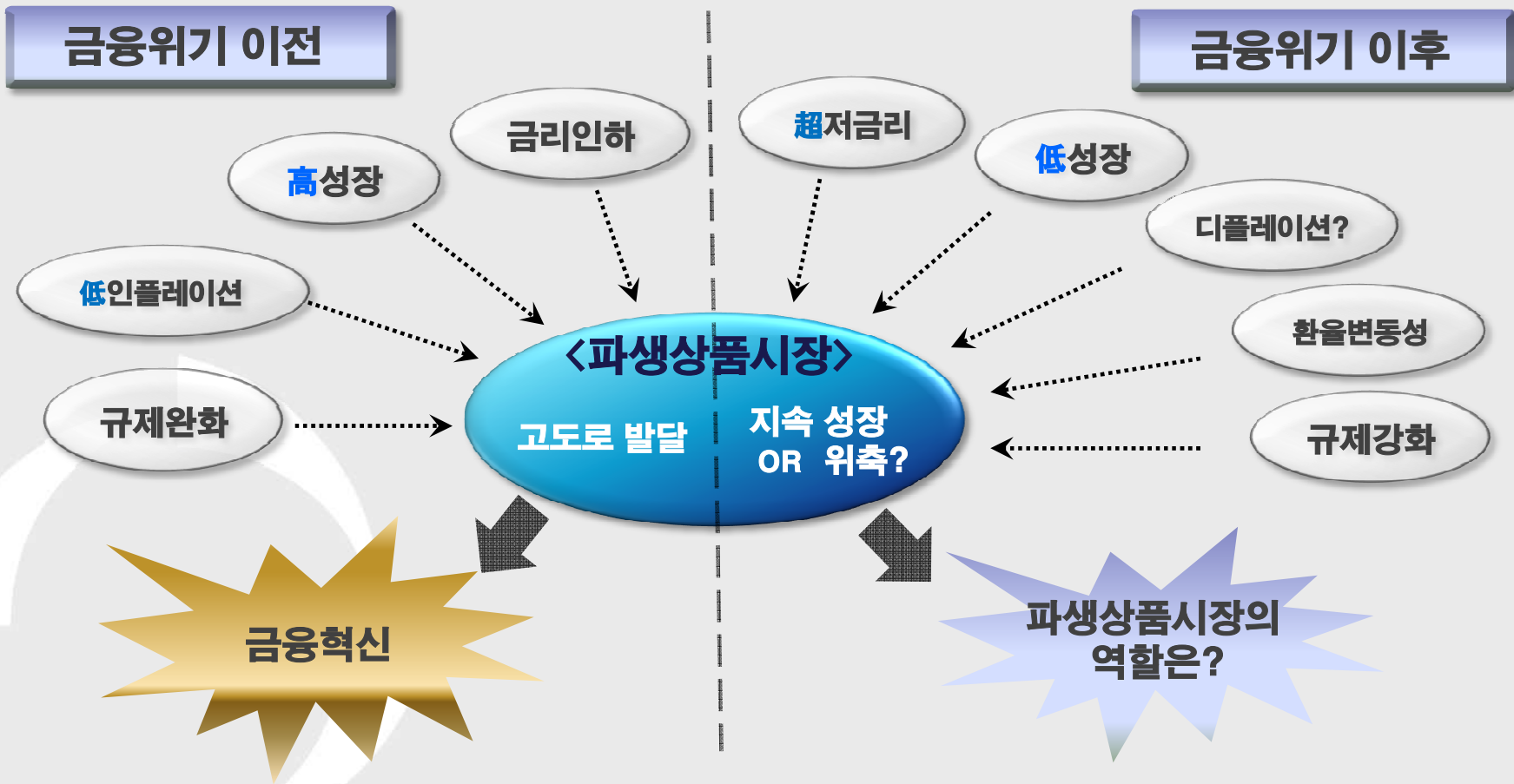
항 목	내 용
시장상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低금리·低변동성 · 글로벌 투자은행 전성기, 헤지펀드의 급격한 성장 (2007년 \$1.5조 자산) · BRICs의 부상 ⇒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 확대 · 장내시장 투명성제고를 위한 시장분할 ⇒ 거래소, ATS, Dark Pool등의 복수시장 거래환경
장내파생상품시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초자산 확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변동성선물·옵션('04, '06, CBOE), 배당선물·옵션('07, '08, EUREX), 신용선물('07, CME) 등 · ETC 시장 도입('03, ASX) · 알고리즘거래의 급속한 발달로 거래구조의 변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유동성의 폭발적 증가, 거래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단일시장화
장외파생상품시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신용파생상품의 거래 크게 증가(MBS 및 CDS의 발행 급증) · 글로벌 IB와 펀드등에 의해 역외시장간의 거래 급증 ⇒ 글로벌 단일시장으로
구조화상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액투자자와 펀드, 기관 등에 의한 구조화상품 거래 크게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수익률제고, 분산투자, 원금보장 등의 다양한 목적 → 장내시장의 확대와 함께 '06년 ETN 출현(Barclays)



- 금융위기로 인한 포괄적인 규제정책의 도입으로 파생상품 발전의 전환기 맞이
 - 글로벌 IB에 대한 규제강화는 파생상품시장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음
- 향후 상품구조의 복잡성보다는 기초자산의 확장을 통한 파생상품의 진화 가능
- 치열해진 거래소간 경쟁과 IT의 발달에 의해 초래된 거래환경의 질적 변화
 - 거래소 시장의 역할과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의 과제

항 목	내 용
시장상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高변동성, 低금리 · 장외파생상품시장을 중심으로 포괄적 규제 도입
장내파생상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변동성선물·옵션의 거래 큰 폭 증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적극적인 지수 개발: 상품성지수의 비중 증가, 해외지수의 편입 증가 · ETF 및 ETF옵션의 거래 큰 폭 증가 · 非표준화 상품의 상장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SPX와 VIX binary 옵션('11, CBOE) → FLEX의 종목 확대('15, CBOE): 아시안옵션과 cliquet을 편입 ·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 및 장내화 노력 · 알고리즘거래 환경에서의 새로운 규제체계 논의
장외파생상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글로벌 스탠더드 및 포괄적 규제정책의 도입: CCP, TR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변화된 시장환경에의 적응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과제
구조화상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매 구조화상품의 확대 및 규제논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超저금리, 불확실성이 증가된 시장환경에서 분산투자·수익률제고의 수단으로 투자증가

파생상품시장은 금융혁신의 주역 !



1 배경

2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환경

3 파생상품시장의 발전과정

4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
- <1. 파생상품시장의 개요>
- <2. 장내시장 상품의 경향>
- <3. 글로벌 규제정책의 흐름 >

5

국내시장의 발전방향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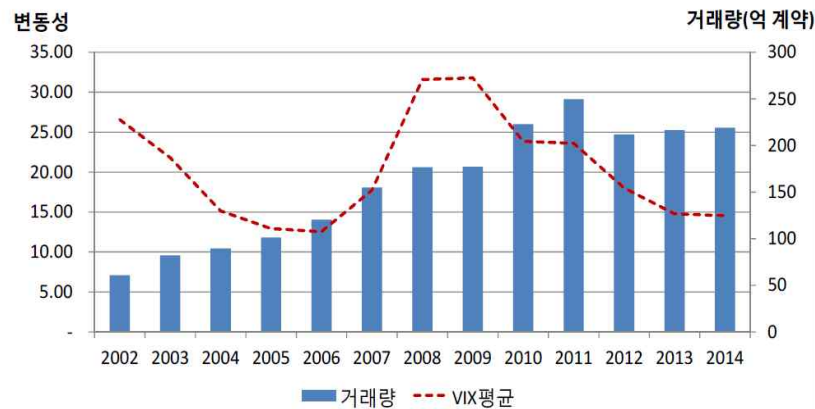
<1. 파생상품시장의 개요>

장내파생상품 시장

◆ 거래 규모

- '14년 기준 거래량 219억 계약 기록
 - 선물 122억 계약, 옵션 97억 계약
 - '12년 다소 감소, 이후 증가추세
- '14년 명목 거래대금 \$1,895조 기록
 - 선물 \$1,461조, 옵션 \$434조
 - 금융위기에도 거래대금 꾸준히 증가하여 '10년 최고 \$2,626조 기록한 후 다소 위축

장내파생상품 거래량



장내파생상품 명목거래대금

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
<1. 파생상품시장의 개요>

장내파생상품 시장

◆ 국가별 거래비중('13~'1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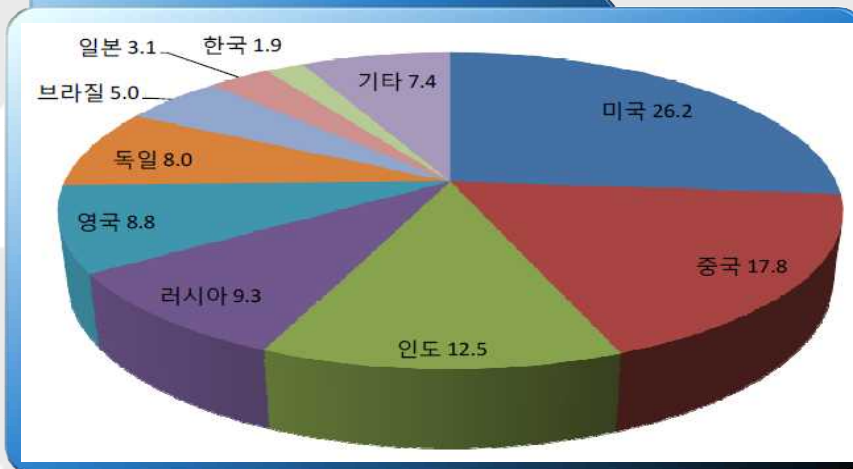
<선 물>

- 상위 9개 국가의 거래량이 글로벌 전체의 약 **93%** 차지
 - 미국 26.2%, 중국 17.8%, 인도 12.5%의 순
 - 아시아의 거래비중이 글로벌 전체의 40% 이상 차지
- 한국의 거래비중은 **1.9%**로 글로벌 9위
 -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과 인도, 일본 다음 순위

<옵 셴>

- 상위 7개 국가의 거래량이 글로벌 전체의 약 **94%** 차지
 - 미국의 집중이 강하여 글로벌 비중이 51.2%
 - 인도와 브라질이 각각 16.1%와 9.8% 차지
- 한국의 거래비중은 **5.8%**로 글로벌 5위
 -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인도 다음 순위

선물의 국가 별 거래비중



옵션의 국가 별 거래비중

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
<1. 파생상품시장의 개요>

장내파생상품 시장

◆ 기초자산 별 주요국가의 거래비중

1. 원자재 파생상품

- 미국, 중국, 영국의 거래비중이 글로벌 전체의 90%이상
- '08년 이후 중국비중 증가 미국 비중 감소

2. 지수 파생상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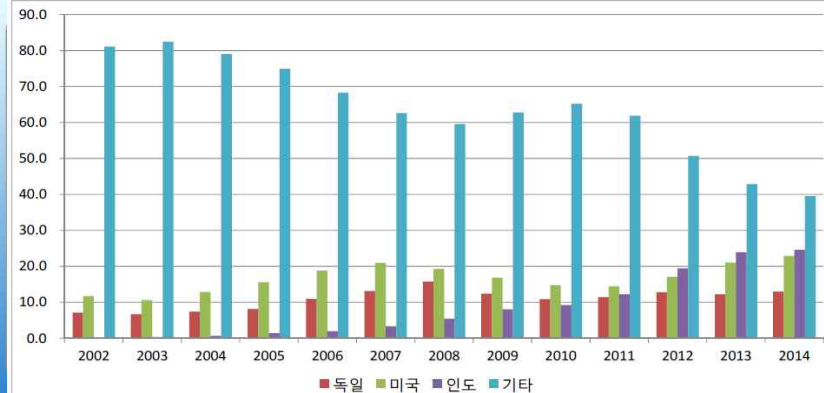
- 미국, 인도, 독일의 거래비중이 글로벌 전체의 약 60%
- 특정국가에 대한 거래집중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

3. 금리 파생상품

- 미국의 거래비중이 약 50%, 영국, 독일이 각각 약 1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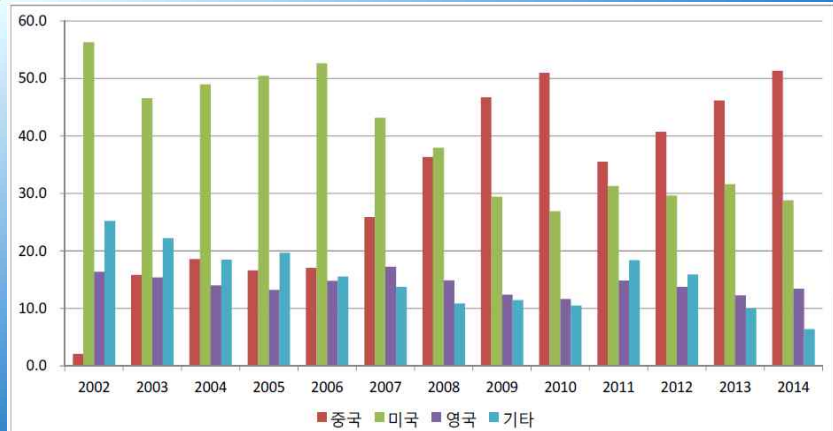
2. 지수파생상품의 거래비중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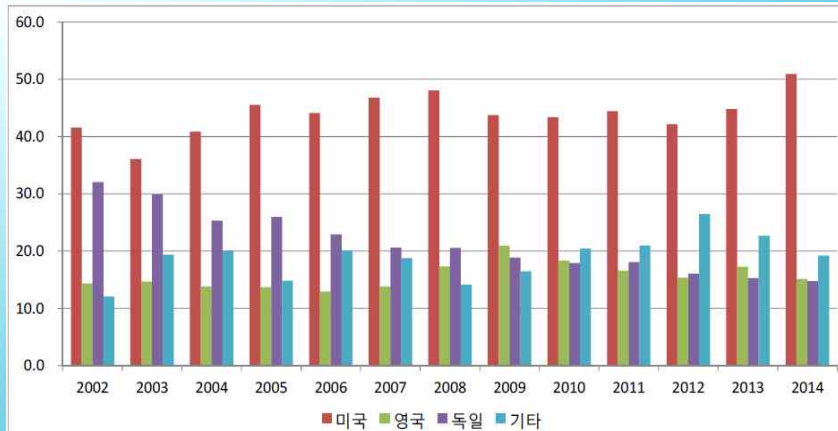
1. 원자재파생상품의 거래비중

(단위: %)



3. 금리파생상품의 거래비중

(단위: %)

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
<1. 파생상품시장의 개요>

장내파생상품 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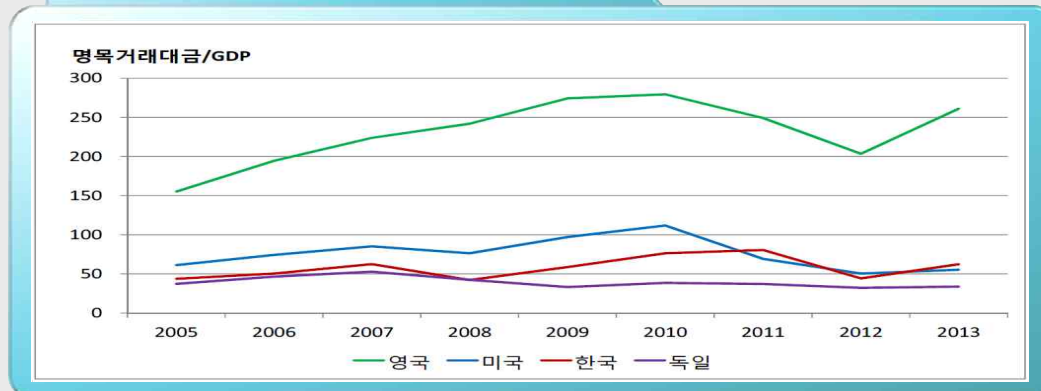
◆ 주요 국가의 GDP 대비 명목거래대금

국가	거래소	GDP(조 달러)	명목거래대금/ GDP	금리파생/GDP
영국	Euronext, ICE Fu(EU), Liffe, LME	2.7	259.1	238.0
미국	CME Group, ICE Fu(US), CBOE	16.8	57.8	46.3
한국	KRX	1.3	62.6	3.3
독일	EUREX Group	3.7	34.1	24.6

- 해외투자자의 시장참여가 높은 시장에서 GDP 대비 명목거래대금의 비율이 높음
- 영·미의 경우 금리파생상품의 거래대금 비중이 큰 반면 한국은 주가지수옵션의 비중이 매우 높음
- 자본시장개방에 따라 시장의 지역적 속성 약화 ⇒ GDP는 파생시장규모의 적절성 판단 척도로 부적절

➔ **KRX시장 상품 라인업 확장을 통한 시장의 균형 있는 발달유도 필요**

국가별 GDP 대비 명목거래대금

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
<1. 파생상품시장의 개요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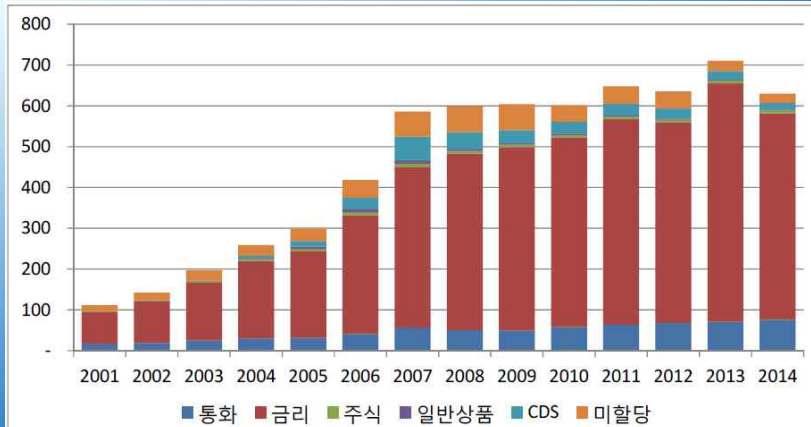
장외파생상품 시장

◆ 명목잔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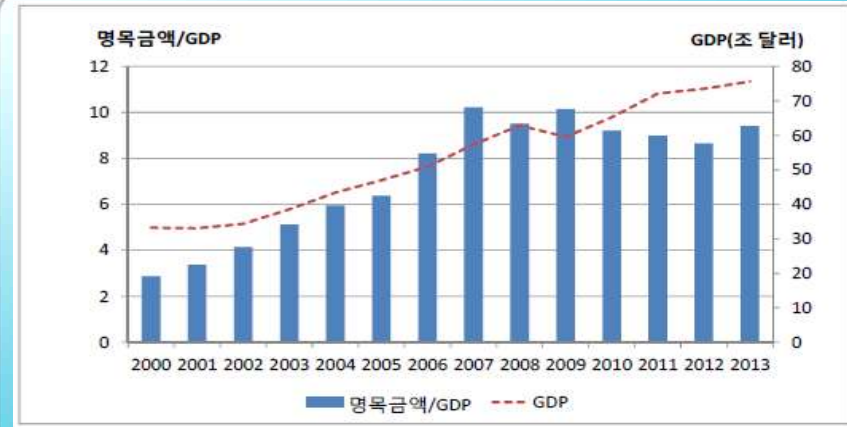
- '14년 명목잔액 \$630조('13년 글로벌 GDP의 9.7배)
 - 금리·통화 파생상품이 전체 명목잔액 90% 이상 차지
 - 특히 금리파생상품의 성장속도가 빠르게 나타남
- 금융위기 이전 빠른 성장
 - '01년 명목잔액 \$110조 ⇒ '07년 \$590조(약 5.5배 성장), 금융위기 이후 시장규모의 증가 정체 경향
- 금융위기 이후 CDS의 명목잔액 크게 축소
 - '07년 \$45.2조 ⇒ '10년 \$31.1조 ⇒ '13년 \$24.5조

장외파생상품 명목잔액

(단위: 조 달러)



GDP 대비 장외파생상품명목금액 비율 (%)

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
<2. 장내시장 상품의 경향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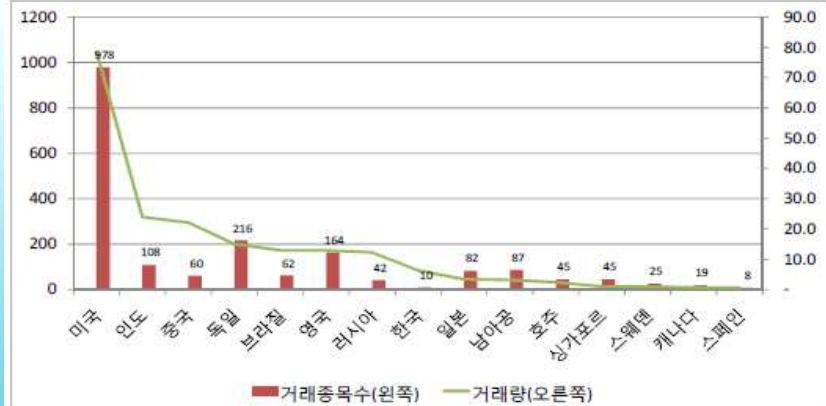


글로벌 거래종목 수

- 거래종목 수 지속 증가 '14년 상반기 2,232종목 거래
- 국가 별 거래종목 수 비교('14년)
 - 미국 978, 독일 216, 영국 164종목 거래
 - 한국은 10종목이 거래되어 거래량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
- 기초자산 별 거래종목 수
 - 원자재/기타 파생상품의 거래종목 수 가장 큰 비중
 - 거래종목 수 지속 증가, '12년 최고 1,315종목 거래
 - 금융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종목 수 증가
 - 지수파생상품의 거래종목 은 금융위기 이후 약 440개 수준
 - 금융위기 이후 통화파생상품 거래종목 수 지속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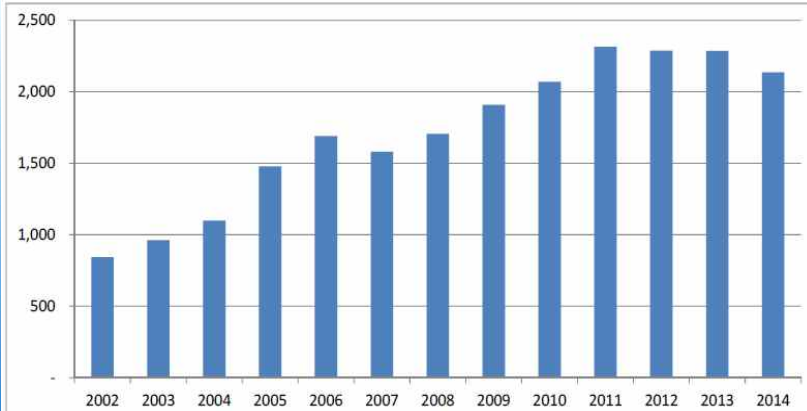
국가별 거래종목 수('14년)

(단위: 종목, 억 계약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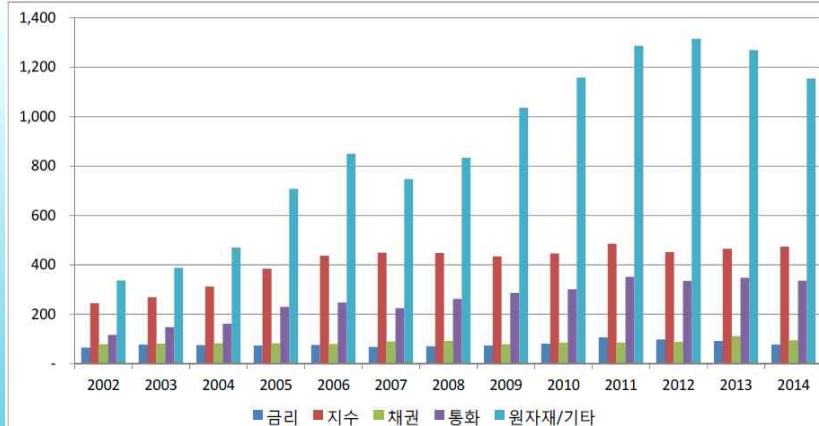
전체 거래종목 수

(단위: 종목)



기초자산 별 거래종목 수

(단위: 종목)

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
<2. 장내시장 상품의 경향>

주요 거래소의 거래종목 수('13년 기준)

· 거래종목 수

- NYMEX가 617종목으로 가장 많은 종목 거래, 반면 거래량은 5.2억 계약으로 종목 수에 비해 작은 편
→ 대부분의 상장종목이 원자재(전체 1,193 상장종목 중 1,189종목 원자재)
- 다음으로 EUREX 202종목, CME 158종목 거래
→ EUREX는 주가지수 중심으로 상장(159종목, 54%)
→ CME는 통화(123종목)와 주가지수(55종목), 날씨(72종목) 파생상품을 주로 상장

· 거래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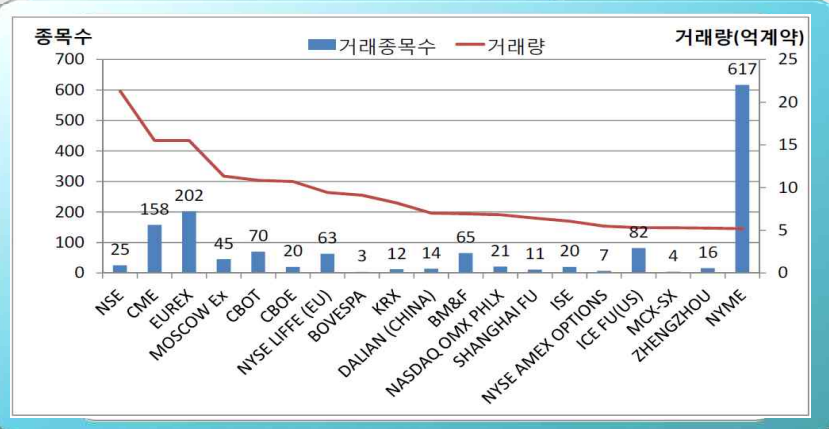
- NSE에서 21.4억 계약이 거래되어 글로벌 거래량 대비 **9.9%**의 가장 높은 비중
- 다음으로 CME와 EUREX가 15.5억 계약으로 글로벌 거래량 대비 **7.2%** 차지

· 명목 거래대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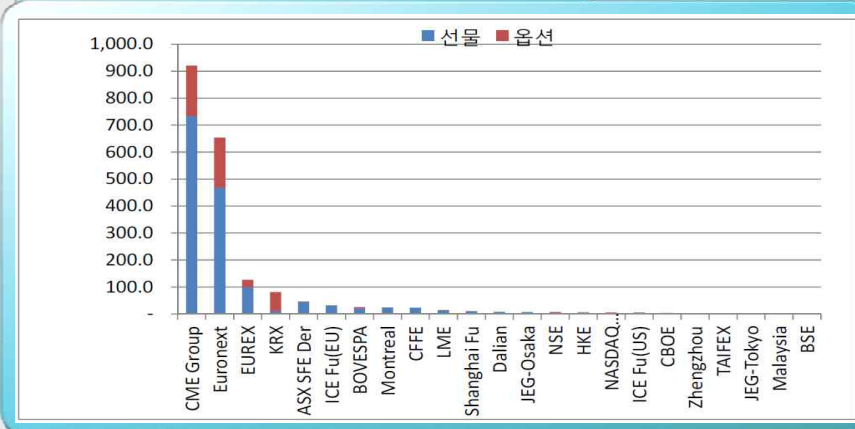
- CME Group이 \$920.5조(선물 \$734.0조, 옵션 \$186.5조)
- Euronext 653.7조, EUREX 126.3조, KRX 81.4조

⇒ 원자재 상품의 거래종목수가 가장 많지만 거래량은 지수와 개별주식에서 높은 비중

거래소 별 거래종목 수 및 거래량 (단위: 억 계약, 종목)



거래소 별 명목 거래대금 (단위: 조 달러)

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
<2. 장내시장 상품의 경향>

주가지수 상품

<시황 지수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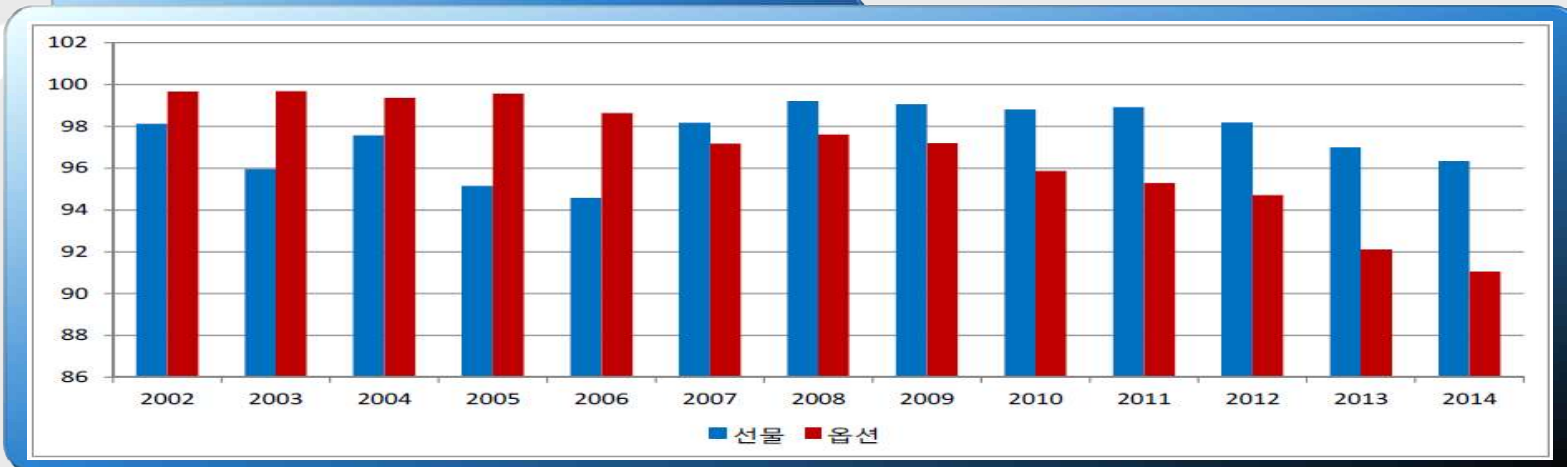
- 국가별, 글로벌 시장전체, 혹은 업종별, 규모별, 지역별 시장 등의 부분 시황을 판단하는 지수
 - 지수구성종목의 수익률을 통해 직접 산출된 지수
 - 지수선물거래의 95%이상, 지수옵션거래의 90%이상
 - 2008년 이후 비중 감소추세
- ⇒
- 글로벌 지수로 확대되는 경향
 - 상품 미니화 경향

<상품성 지수>

- 시황지수 이외의 지수
 - 변동성지수, 배당지수, 롱-숏, 스프레드 등의 전략지수 등
 - 2008년 이후 옵션을 중심으로 거래비중 확장 추세
- ⇒
- 구조의 유연성을 통해 지수시장의 틈새 시장으로 역할 확대

시황지수 선물·옵션 거래량 비중

(단위: %)

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
<2. 장내시장 상품의 경향>

주가지수 상품

◆ 주가지수 선물을 중심으로 상품이 미니화되는 경향

<글로벌 미니선물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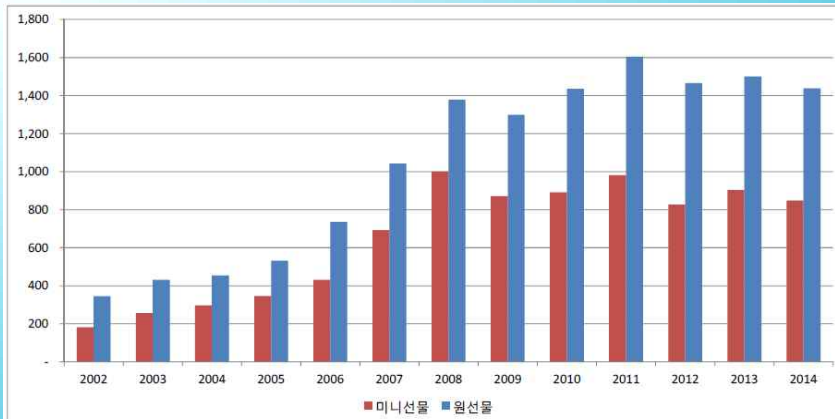
- 미니선물 거래는 '14년 8.5억 계약
- 원 선물 거래량 14.4억 계약의 60~70% 수준
- 지수상승으로 미니선물에 대한 수요 증가

<미국 미니선물>

- 미니선물은 '14년 5.7억 계약 거래
- 미국 지수선물 전체 거래량의 90%이상 차지
- 지수의 상승으로 미니선물이 원 선물 대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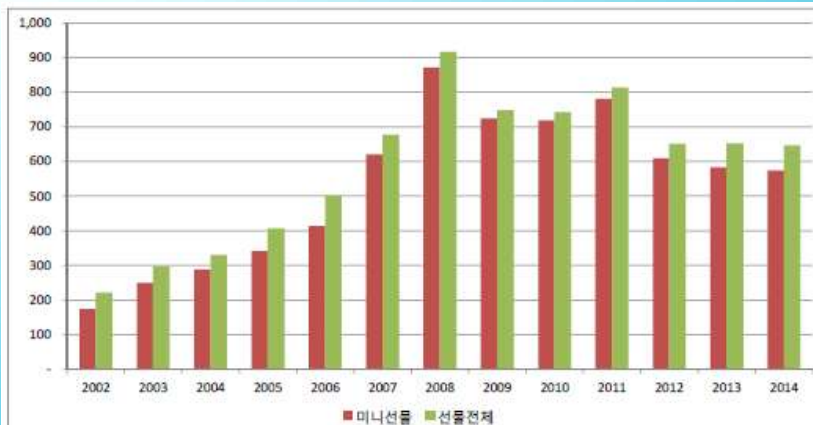
글로벌 미니선물의 거래량

(단위: 백만 계약)



미국 미니선물의 거래량

(단위: 백만 계약)

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
<2. 장내시장 상품의 경향>

주가지수 상품

◆ 해외지수 상품의 거래비중은 낮지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비중 증가

<글로벌 해외지수 경향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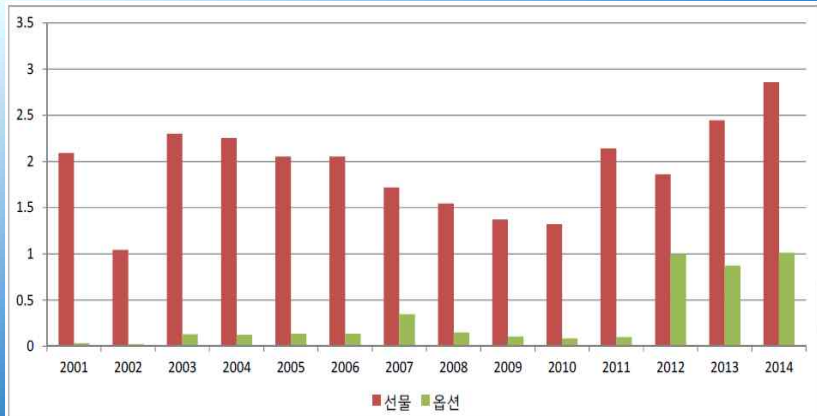
- '14년 해외지수 선물 32.7백만, 옵션 28.6백만 계약
- 글로벌 주가지수 선물거래량의 약 3%
- 글로벌 주가지수 옵션 거래량의 약 1% 수준
- 금융위기 이후 선물을 중심으로 큰 폭 거래 증가

<미국 해외지수 경향>

- 해외지수선물은 '14년 1.2천만 계약 거래, 증가추세
- '14년 지수선물 거래량의 1.8%
- 금융위기 이후 선물 거래량 빠르게 증가
- 옵션의 거래량은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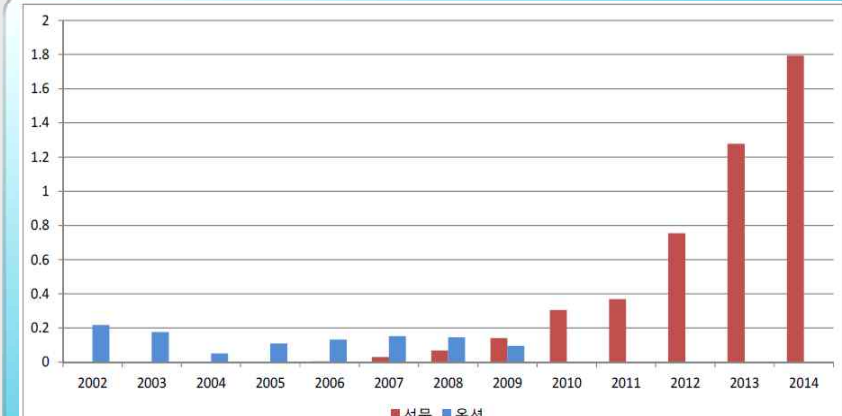
해외자산 편입지수 거래량 비중

(단위: %)



미국 해외자산 편입지수 거래량 비중

(단위: %)

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
<2. 장내시장 상품의 경향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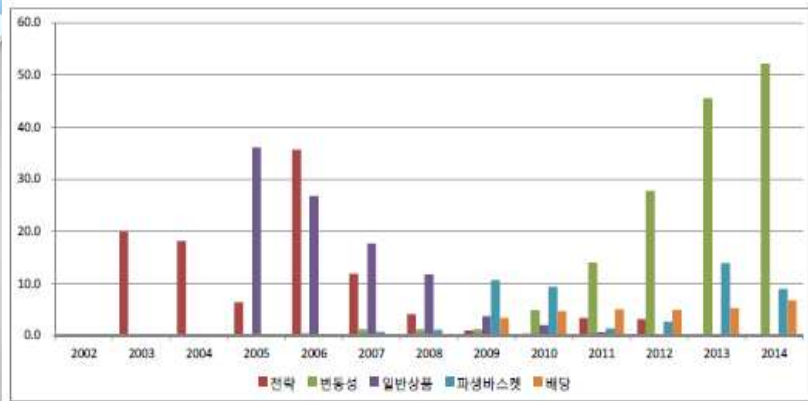
주가지수 상품

◆ 상품성지수의 거래비중은 낮지만 역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

- 선물의 거래는 금융위기 이후 **변동성지수**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'14년 8.3천만 계약 거래
 - 금융위기 이전 스프레드, 롱-숏 등의 전략과 일반상품을 편입, 이후 변동성지수, 배당, 파생상품 바스켓 편입
 - '14년 변동성지수 선물은 5.2천만 계약이 거래되어 상품성지수 선물 전체 거래량의 **63%** 차지('14년 미국이 약 87%)
 - 옵션은 금융위기 이후 **변동성지수**를 중심으로 거래량 크게 증가하여 '14년 2.0억 계약 거래
 - 변동성지수 옵션 1.7억 계약으로 전체 상품성지수 옵션거래의 **약 80%** 차지('14년 미국이 약 98%)
 - JSE와 유럽(독일)을 중심으로 배당지수 및 개별주식배당선물·옵션 거래
- ⇒ · 상품성지수의 성공은 당시의 시장환경과 긴밀하게 관련
 · 지수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시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노력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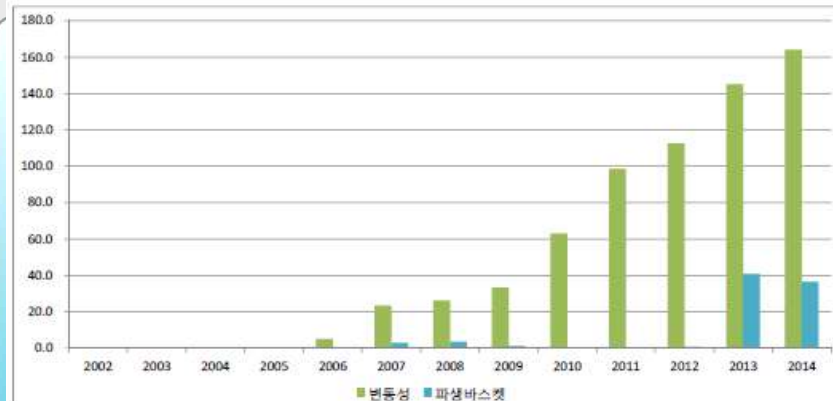
상품성지수 선물 거래량

(단위: 백만 계약)



상품성지수 옵션 거래량

(단위: 백만 계약)

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
<2. 장내시장 상품의 경향>

소매파생상품

◆ ETF와 ETF옵션의 동반 급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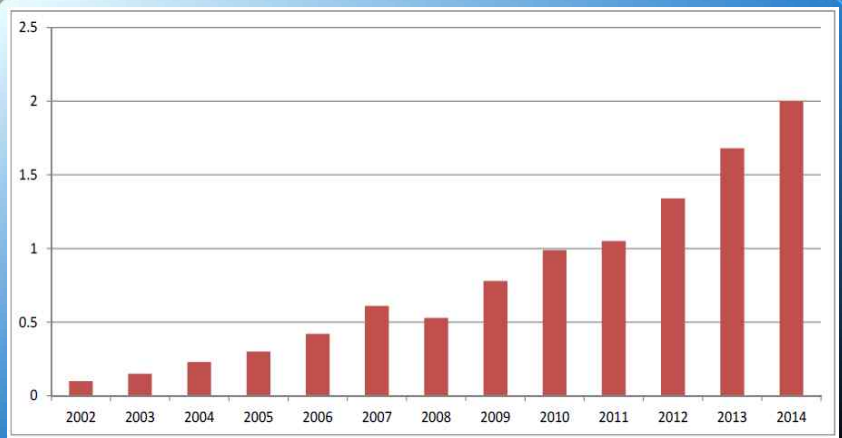
- ETF '14년 순자산규모는 \$2.0조
 -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거래 증가
 - 편입자산 중 해외·글로벌 지수의 비중이 35%
- 글로벌 ETF옵션 '14년 17.6억 계약 거래
 - 미국이 14.4억 계약으로 글로벌 거래량의 82% 차지
 - 금융위기 이후 거래량 급격하게 증가

<미국 ETF옵션 성공의 배경>

- ETF 및 주가지수·개별주식 옵션시장과의 연계거래를 통해 풍부한 거래전략 제공
- 뮤추얼펀드, 헤지펀드 등에 의한 ETF옵션 적극 활용
- 고빈도 알고리즘거래에 의한 유동성 확대
 -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자는 'ETF옵션-지수옵션'의 시장 조성자로서 기능
- CBOE의 명목 거래대금 비교
주가지수: ETF옵션:개별주식옵션=\$37.3조:\$3.8조:\$3.6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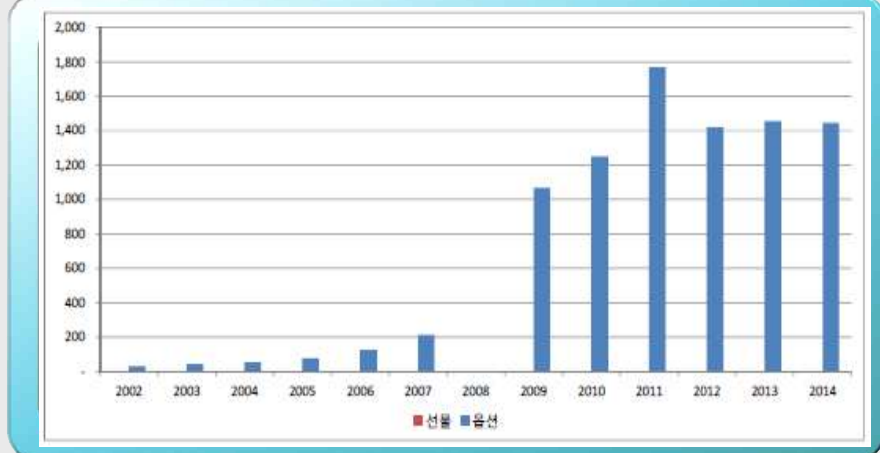
ETF의 설정규모

(단위: 조 달러)



ETF 선물옵션의 거래량

(단위: 백만 계약)

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
<2. 장내시장 상품의 경향>

소매파생상품

◆ 유럽을 중심으로 장내 구조화상품 거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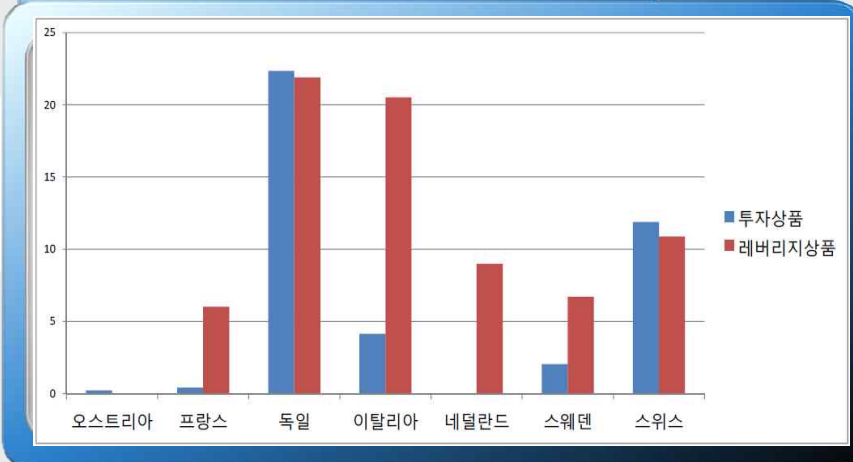
<유럽의 장내 구조화상품시장>

- 유럽 장내 구조화상품 '14년 €1,161억 거래
 - 독일, 이탈리아, 스위스가 유럽 전체 장내 구조화상품 거래의 80% 차지
 - 독일, 스위스의 경우 원금 보장형 등의 투자상품 거래비중이 50%이상
 - 유럽 전체로는 레버리지상품 의 거래비중이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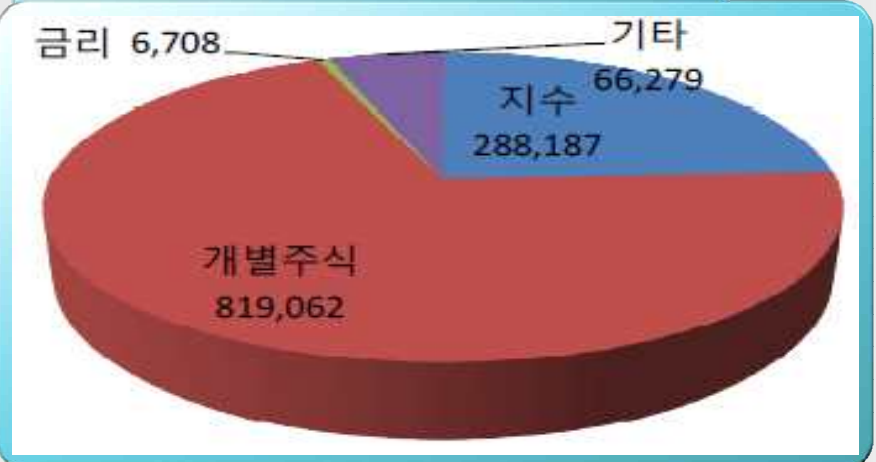
<독일의 장내 구조화상품시장>

- '14년 상장종목 수 1.8백만 종목
 - 지수와 개별주식이 전체의94% 차지
 - 금리는 종목 수 비중은 작지만, 투자상품의 자산으로서 가장 큰 발행금액 비중 차지
- '14년 미결제잔액 €731억

유럽국가 장내 구조화상품 거래대금 (단위: 10억 유로)



독일 장내구조화상품 상장종목 수('14년) (단위: 종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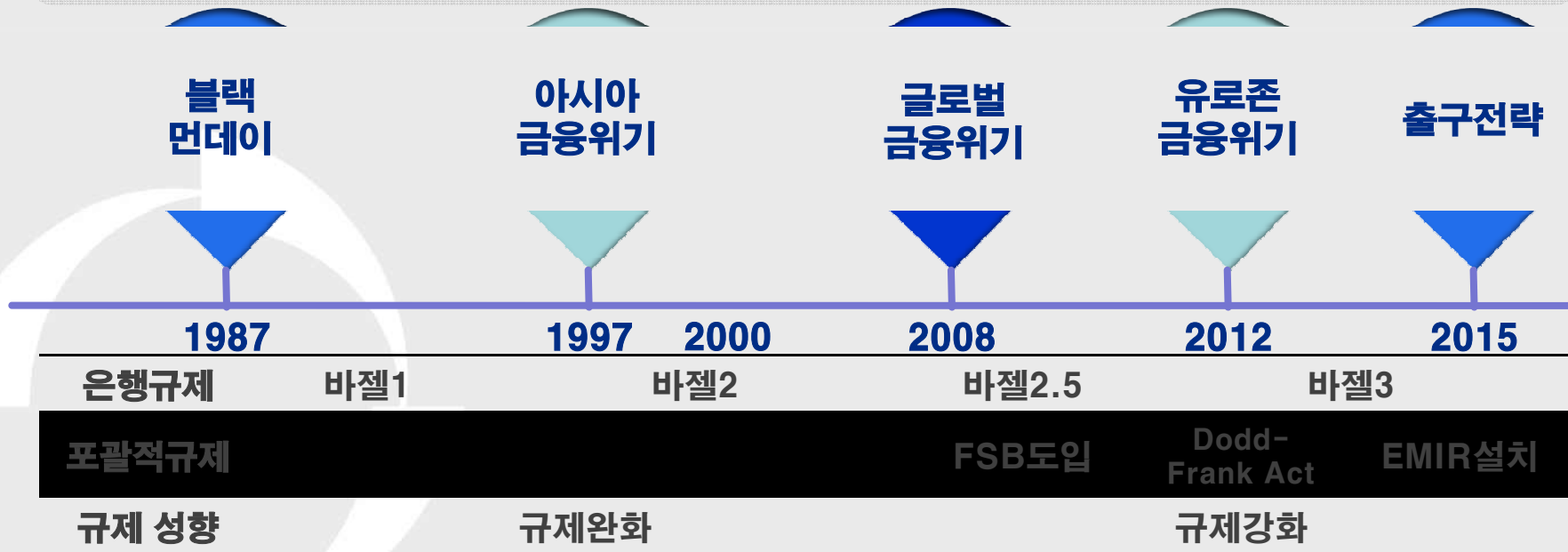
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
<3. 글로벌 규제정책의 흐름>

규제정책 연대기

- 은행의 시스템에 관한 규제
 - 블랙먼데이('87년) 이후 금융위기 이전까지 바젤I, II, 금융위기 이후 바젤III 도입
- 금융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
 - 금융위기 이전 금융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는 없었음
 -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Dodd-Frank Act와 유럽의 MiFIDII/MIFIR에 의해 글로벌 규제 주도

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
<3. 글로벌 규제정책의 흐름>

금융위기 이후 규제체계 변화

금융위기 前

< 환경 >

- 미국의 IT버블 위기탈출
- 유럽의 유로도입 성공
- 신흥국들의 견조한 성장

< 포괄적인 규제 >

- 금융시장의 포괄적인 규제 부재
- 개별 국가 단위의 은행규제
⇒ 중앙은행 권한 강화를 통한
거시건전성 감독과 규제

< 은행규제 >

- 바젤I: 자기자본규제(8%이상)
- 바젤II: 자본적정성점검 후
추가자본 적립

금융위기 後

< 환경 >

- 장외파생상품이 금융위기의 중요한 원인제공
- 글로벌 금융시장 통합환경 및 규제의 국제공조 필요성

< G20 합의 >

- 표준화된 파생상품은 거래소/
전자플랫폼에서 거래
-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TR 보고
- CCP 청산되지 않는 거래에는
높은 증거금 부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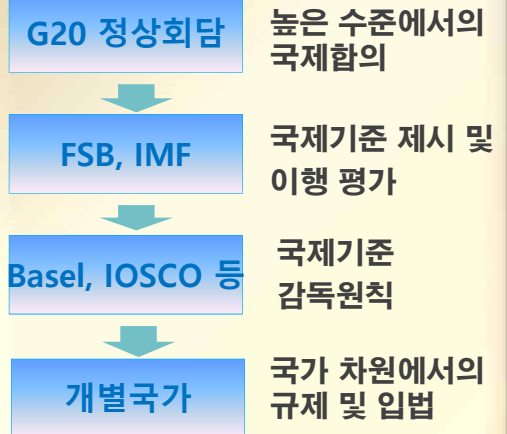
< 개별국가 단위 정책 >

- 미국: Dodd-Frank Act('10)
- 유럽: MiFID II/MIFIR ('11)

< 은행규제 >

- 바젤III: 자본규제 강화, 레버리지 및 유동성 비율 도입 등

< 국제공조의 흐름 >

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
<3. 글로벌 규제정책의 흐름>

규제 정책

【미국과 유럽의 규제정책】

구분		미국	유럽
금융 위기 이전	포괄적 규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포괄적 규제 없음 Glass-Steagall Act의 폐지로 글로벌 금융 시장 규제완화 주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포괄적 규제 없음 통합된 유럽 안에서 금융시장의 통합과 국가 간 자본이동의 장벽철폐 등에 몰입
	투자자보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투자자의 선택과 책임 강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UCITS I('85)-UCITS III('01) 유럽 통합환경에서 펀드시장의 투자촉진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제정 유럽의 통합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진화
금융 위기 이후	포괄적 규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Dodd-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('10) 금융시스템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목적 G20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개혁 포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투자자보호 위한 다양한 기구 설치 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MiFID II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전하고 체계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목적 장외파생상품 뿐 아니라 고빈도 및 알고리즘 거래자 규제 등 장내시장 규제 포함 MiFIR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 기존체계의 개선과 관련된 규제
	투자자보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불완전 판매로부터 소매투자자 적극 보호 투자자보호 공적 기능 강화 투자자의 책임보다 금융회사의 책임 강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UCITS IV('09)- UCITS V('14) 자산운용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한 투자자보호

1

배경

2

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환경

3

파생상품시장의 발전과정

4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
5

국내시장의 발전방향

- <1. 新상품 · 新시장 확대>
- <2. 규제 패러다임 전환>
- <3. 파생상품시장 기능에 대한 인식제고>

국내시장의 발전방향

<1. 新상품 · 新시장 확대>

시장설계의 목표

안정성제고

- 투자자보호
- 시장의 체계적 위험 관리
- 공정한 거래
- 주변시장의 위험 에서 보호

효율성 제고

-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촉진
- 가격발견
- 자본의 유입확대

상호촉진

· 자본시장 활성화
· 금융산업 육성

상호촉진

금융 혁신 제고

-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
- 다양한 운용전략 제공
- 수익률제고의 수단 제공

상호촉진

투자자의 선택권 확대



시장신뢰성 제고

국내시장의 발전방향

<1. 新상품 · 新시장 확대>

파생상품 상장의 방향

KRX시장 조건

- 주가지수선물 · 옵션 유동성 풍부
- 간접투자상품시장부재
- 협소한 상품 라인업

글로벌 경향

- 배당 · 변동성상품 활발
- ETF옵션 등 소매시장 활발
- 해외시장연계 강화

주변요인

- 중국 · 인도의 성장과 위협
- (ASEAN + α) 경제통합 움직임

파생시장 상품상장의 방향

<국내지수 파생상품>

- 非주식 파생상품
- 변동성 파생상품
- 전략形 파생상품

<해외지수 파생상품>

- 해외 지수 다양화
- 중국 · 아시아 고성장
신흥국 관련 상품 상장

<자산관리 파생상품>

- ETF옵션 · ELS · ETN 등
- 간접투자-기초시장간
Win-Win

<장외파생상품 장내화>

- 장외상품의 표준화 ·
지수화
- FLEX시장

· 자산관리수단의 다양성

· 다양한 위험관리수단 제공

국내시장의 발전방향

<1. 新상품 · 新시장 확대>

1. 국내시장 기초인프라 확장

KRX 파생시장

- **주식중심의 시장으로 기초자산이 다양하지 못함**
⇒ 자본시장의 체계적 위험이 높음
- **상품 라인업이 협소하여 거래전략 및 자산운용전략이 제한적임**
⇒ 시장의 효율성 저하 및 파생시장의 역할 제한,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제공 못함
⇒ 투자자의 선택권을 약화하여 시장의 편중현상 강화 및 투자자보호문제 야기

금융시장 발전의 기초 인프라

기초자산 확대

- **단기금리 파생상품 도입 필요**
 - 단기금리파생상품은 금리관련 현물· 파생상품 활성화의 기초요소
 - 적절한 지수산출이 필요함
- **통화시장 확대 필요**
 - 외국인 투자자의 확대를 위한 시장 인프라
⇒

변동성 관련 상품

- **개별주식옵션시장 활성화**
 - 주식운용 위험관리의 기초요소
- **장기변동성 관리수단 육성**
 - 현재의 단기옵션 중심의 거래구조에서는 장기 자산운용의 변동성관리수단으로 활용 제한적
 - LEAPs시장의 개설 등을 통한 육성 필요

국내시장의 발전방향

<1. 新상품 · 新시장 확대>

2. 글로벌 허브시장 구축을 위한 해외관련 상품 상장

글로벌 현황

- 거래소간 교차거래 · 상장 활발, MSCI, FTSE 등의 글로벌 지수 상장 증가 추세
 - 미국은 GLOBEX를 통한 거래소간 연계거래 및 MSCI 글로벌지수 상장
 - 유럽은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국가간 자유로운 교차거래 · 상장
 - 싱가포르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인도, ASEAN 등과 교차상장

글로벌 단일시장

주식기반 해외지수

- 해외지수 발굴 및 상품 상장
 - 국내시장 수요에 따른 선제적인 지수 발굴
 - 글로벌 허브시장 구축
- 국내외 상품성지수 확대
 - 저금리 환경에서 배당투자 관심
 - ⇒ 배당지수 개발 확대 및 선물·옵션 상장
 - 복수시장 연계 지수 및 금융상품 개발 확대
 - ⇒ 시장간 상관성 관련 지수 및 파생상품 등

일반상품 관련 지수

- 기초자산의 코스피 편중 및 매력도 저하
 - 금리, 통화, 원자재 등으로 기초자산 확대 필요
- ETC시장 활성화
 - ETF를 활용한 원자재지수 관련 상품
 - 가공상품을 통한 표준화 및 지수 산출
 - 원자재 생산지와 연계한 시장개설

국내시장의 발전방향

<1. 新상품 · 新시장 확대>

2. 글로벌 허브시장 구축을 위한 해외관련 상품 상장

중국 · 아시아 신흥시장의 부상

- BRICS를 중심으로 신흥시장의 역할확대, 미국 · 유럽주도의 금융시스템의 한계 노출
- 중국은 세계 2위의 자본시장 규모를 배경으로 최대의 파생시장으로 부상할 잠재력
- 인도의 파생시장은 빠르게 성장, ASEAN 경제통합 진행 중
- 아시아는

아시아 금융시장의 동반성장 모색

중국 관련 파생상품

- 국내 상장된 중국 ETF를 기초로 옵션 상장
 - 중국 관련 ETF는 12개 국내시장 상장
- 중국 지수상품 국내상장 추진
 - CSI300, FTSE China A50 등
- 위안화 선물 및 위안화 관련 이종통화 선물 상장
 - 달러/위안화, 유로/위안화 등

아시아 관련 파생상품

- 高성장국가 중심의 해외자산 지수화
 - 중국과 인도, ASEAN 국가 등의 자산
 - ⇒ 수익성제고와 분산투자의 수단
 - 해당 국가 자본시장 진출 선점효과

국내시장의 발전방향

<1. 新상품 · 新시장 확대>

3. 간접투자시장 육성과 연계된 상품

글로벌 현황

- 저금리 · 고령화 환경에서 소액자산관리의 필요성 증가 ⇒ 간접투자상품시장의 중요성 증가
- 미국: ETF/ETF옵션을 중심으로 간접투자상품시장 ⇒ 자산운용기관 · 개인투자자의 시장으로 성장
- 유럽: 구조화상품의 장내화 ⇒ 투명성과 적절한 레버리지를 통해 소액투자자의 옵션시장으로 기능

소액투자자 · 자산운용자 수익률제고

ETF/ELS운용

- ETF/ELS와 관련된 해외지수 선물 국내 상장
- 주식 · 非주식의 다양한 해외지수를 ETF로 ⇒ 시장참여자의 투자선택권 확대
- STOXX50, HSCEI 등 해외자산 ⇒ 해외지수 ELS의 수요확대에 대응 ⇒ ELS의 기초자산 다양화 및 수익률제고를 위해 해외지수 적극 발굴 필요
- 헤지를 통한 간접투자 · 기초시장의 동반성장 및 시장조성자로서 기관의 수익원 확대

ETF옵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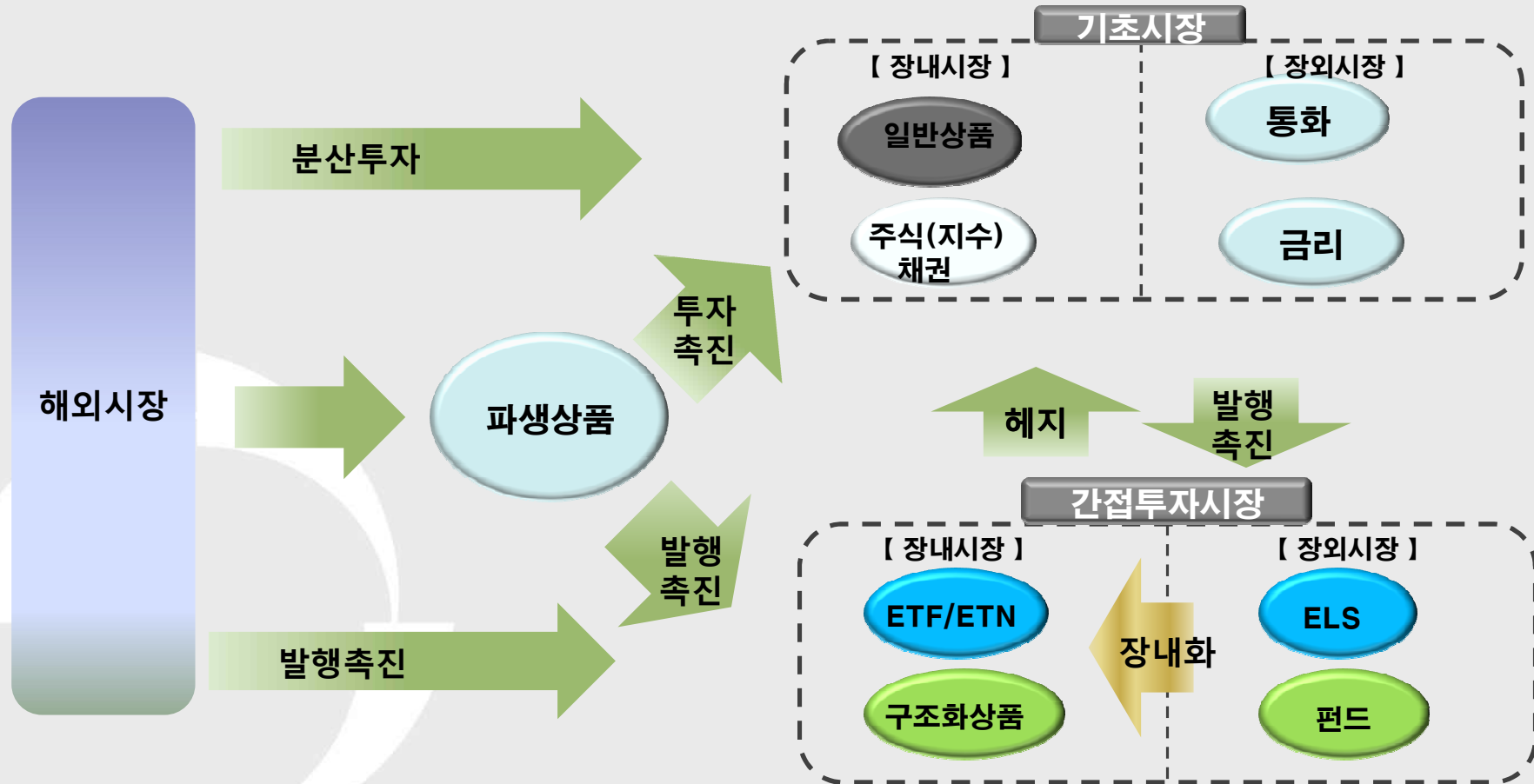
- 코스피200 등을 중심으로 ETF옵션시장 개설
- 증가하는 ETF 투자자에 대한 헤지수단 제공
- 다양한 투자수요 창출
- ETF ⇔ ETF옵션 상호간의 先순환 구조
- ※ 코스피200주가지수옵션의 풍부한 유동성과 시장조성 인프라는 ETF옵션의 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여건
- 중국 등 아시아 국가 지수 ETF에 대한 옵션 상장

국내시장의 발전방향

<1. 新상품 · 新시장 확대>

3. 간접투자상품시장 육성과 연계된 상품

◆ 간접투자상품시장과 기초시장의 유기적 관련성을 통한 시장 활성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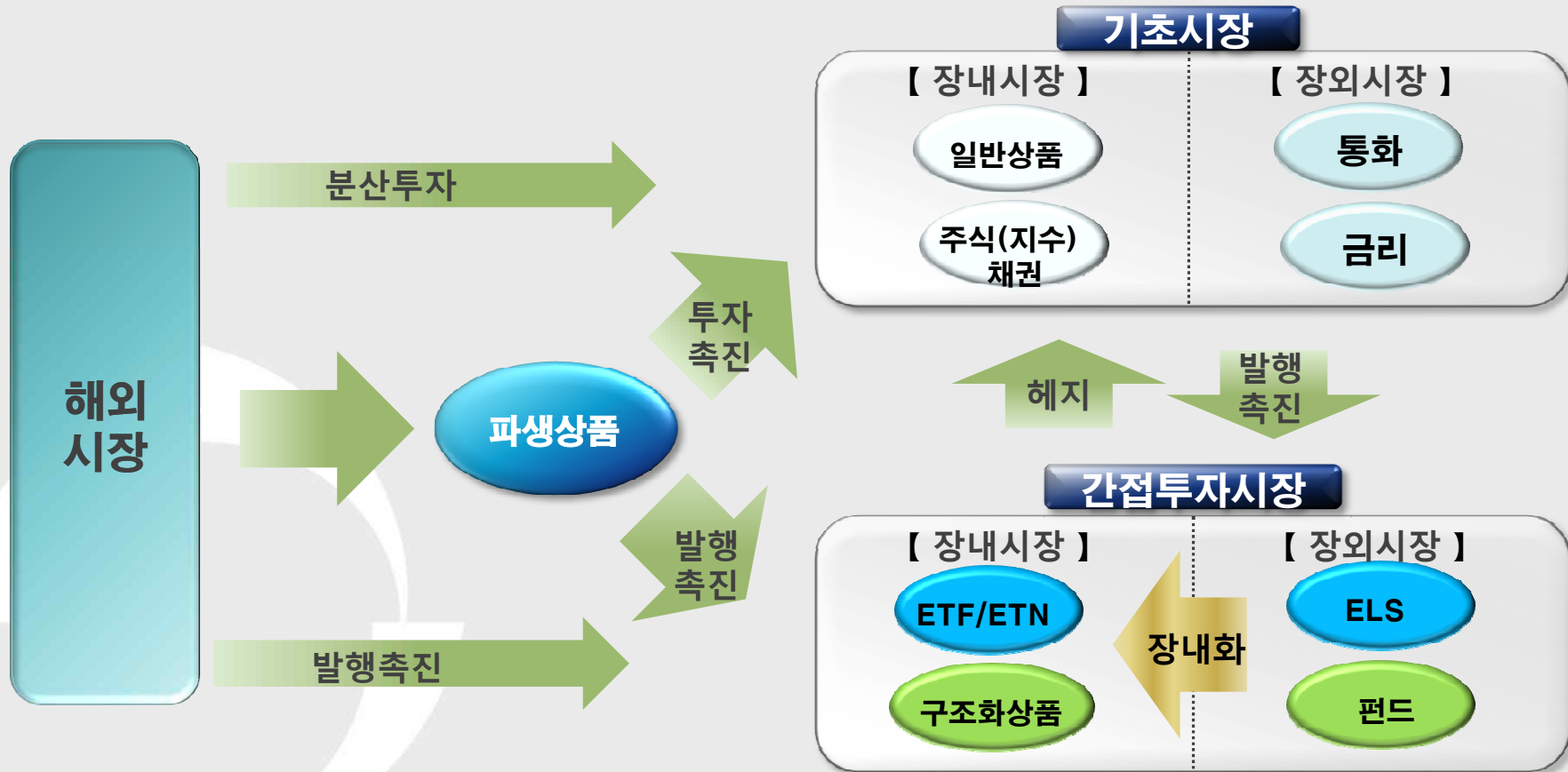


파생시장 발전방향

<1. 간접투자상품과 장내시장의 유기적 관련성 제고를 통한 시장활성화>

3. 간접투자상품시장 육성과 연계된 상품

◆ 간접투자상품시장과 기초시장의 유기적 관련성을 통한 시장 활성화



국내시장의 발전방향

<1. 新상품 · 新시장 확대>

4. 간접투자상품시장 육성과 연계된 상품

글로벌 장외파생시장 규제

- 글로벌 장외파생시장 규제의 핵심은 투명성제고에 있음
- 장외시장의 장내화 or 장내시장 수준의 거래 및 청산 · 결제 인프라 구축
- 가능한 장외파생상품의 장내화

장내시장의 역할 확대

장외파생시장 인프라 정비

- CCP의 서비스 확대 및 TR 구축
 - IRS에서 CDS, NDF까지 청산서비스 확대
 - 장외시장의 장내화 기반 마련
- G20의 합의사항 및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를 위한 선제적 인프라 정비
 - 국내 장외파생시장의 혼란 또는 위축 예방

장외상품의 장내거래화

- 거래가 빈번한 장외파생상품의 표준화 및 장내화
- CME 그룹은 IRS의 스왑선물 상장
- 장외파생상품의 지수화를 통해 관련된 상품 상장
- 장외파생상품 전자거래 플랫폼 도입
 - 장외파생상품 전자거래 플랫폼은 향후 거래소와 경쟁관계가 될 수 있음

국내시장의 발전방향

<2. 규제 패러다임 전환>

건전한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

글로벌 경향

-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는 강화 → 글로벌 스탠더드에 의한 시장의 체계적 위험 관리
- 장내파생시장은 육성 →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 및 정보 비대칭성 완화

글로벌 환경을 고려한 규제

- 글로벌 시장환경 변화 선제 대응
→ G20합의사항 조기이행
- 국내시장에만 적용되는 규제 철폐·완화
→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투자자보호 및 시장규제

시장친화적 규제

- 진입규제의 강화보다는 위험관리 및 투자자 편의향상을 우선하는 정책방향 수립
→ 유동성위축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는 투자자편의 감소로 연결

- 글로벌 스탠더드의 적극적인 이행
→ 그러나 국내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최소화하는 노력
-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
→ 펀드의 파생상품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

- 다양한 자산관리상품 라인업 구축 및 육성
- 기본예탁금 규제 등 부적절한 진입규제 폐지
→ 진입규제 강화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투자의 해외유출 야기
- 투자자교육 강화 및 투자정보서비스 확대

국내시장의 발전방향

<2. 규제 패러다임 전환>

KRX 투자자보호정책 현황과 해외사례 비교

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소액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진입규제 강화하여 파생상품 거래 차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본예탁금, 사전교육, 회원기관에 의한 적합성심사 등 3종의 규제구조 · 소액투자자의 시장이해도에 비추어 사실상 사전교육의 효과가 적음
문제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투자의 해외유출 및 자본시장 투자위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액투자자의 자산운용 위험 증가 및 자본시장 투자 위축 · 투자자의 해외유출 · 고 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손실위험 증가
해외 사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선진국의 경우 소액투자자와 회원기관의 자율적 판단과 투자자교육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투자경험,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전교육 · 중국 등의 초기시장일수록 소액투자자의 진입장벽 높음

구 분	미국/유럽	싱가포르	중국	한국
기본예탁금	없음	없음	약 8,500만원	3,000만원
사전교육	없음	사전교육 대상자규정	모의거래 및 시험	모의거래
적합성심사	회원기관의 자율적 판단			

국내시장의 발전방향

<3. 파생상품시장 기능에 대한 인식제고>

금융시스템과 경제

금융시스템

긍정적 기능

- **자본시장 가격발견**
 - 시장의 효율성 제고
 - 투자의 신뢰성 제고
 - 자산의 효율적인 再배분
- **위험의 효과적인 배분**
 - 유동성 창출
 -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여 자본시장의 투자 촉진

규제



부정적 기능

- **유동성 과잉**
 - 가격의 신뢰성 저하
 - 자산배분의 효율성 저하
- **불공정거래**
 - 가격왜곡 및 시장신뢰성 저하
- **소수 거래자에 의한 거래집중**
 - 가격왜곡 및 시장신뢰성 저하

투자촉진+기업활동 촉진

실물경제

개별 국가의 금융시스템과 경제구조에 따라 경제효과가 상이함

국내시장의 발전방향

<3. 파생상품시장 기능에 대한 인식제고>

파생상품의 경제적 기능

자본시장의 완비

$$\text{자본수익} = \text{무위험요소} + \text{위험요소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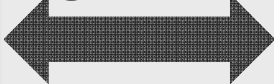
자본시장

+

파생시장

- 자본시장 투자촉진
- 시장효율성 증가

상호촉진



- 자산운용
- 기업재무관리
- 통화정책

금융의 혁신

- 거시환경
 - 저금리
 - 선진국 성장률 하락
 - 글로벌 시장통합
 - 파생상품의 구조적 유연성 활용
- ⇒ 수익률 제고
- ⇒ 다양한 형태의 수익구조 창출
- ⇒ 고부가가치 금융산업 발달

경제 성장

· 파생상품의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움

- 파생상품은 가치가 아닌 위험을 전달
- 경제시스템의 생산과 성장의 촉진 역할
- 80년대 이후 그 역할 증가추세

· 80년대 이후 금융산업 생산비중의 가파른 증가

- 70년대 GDP의 4%수준에서 80년대 8%이상 비중
- 파생상품시장의 확장과 함께 빠른 증가

<미국 GDP 대비 금융산업 생산의 비중>

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
<3. 파생상품시장 기능에 대한 인식제고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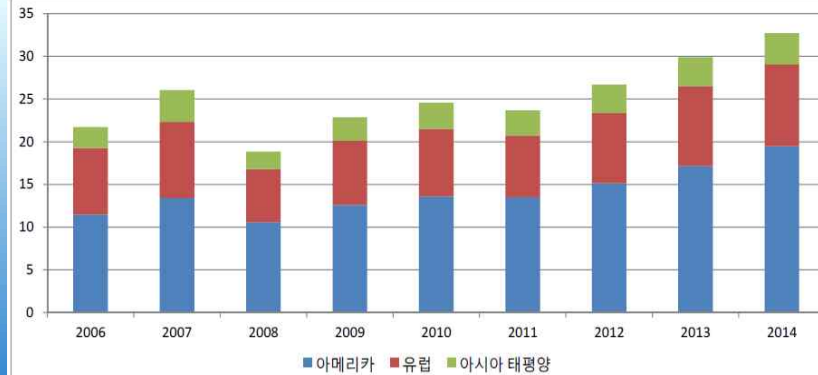
자산운용과 파생상품

부의 증가 및 인구 고령화에 따라 펀드규모 지속 증가

- 글로벌 펀드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경향
- '13년 글로벌 펀드자산 규모 \$164조
- 그 중 약 60%인 \$97.2조가 연금, 보험, 뮤추얼펀드
- '14년 글로벌 뮤추얼펀드의 규모는 \$33조
- 금융위기로 큰 폭의 감소
- '12년에 \$26.8조로 이전 수준 회복
- '14년 헤지펀드의 자산은 \$3.1조, 빠른 증가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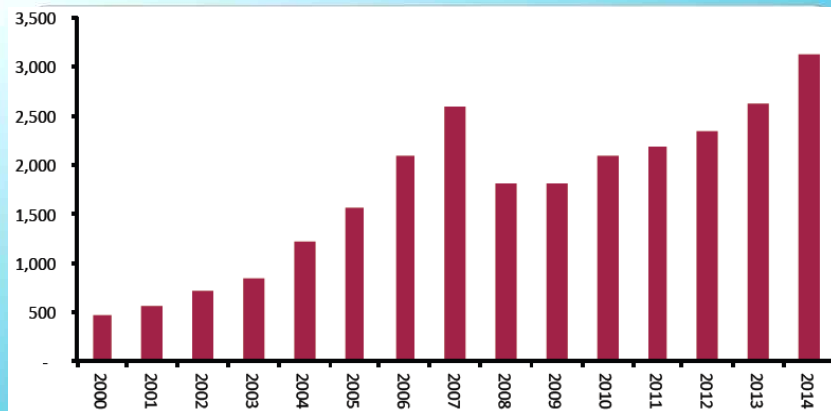
뮤추얼펀드 권역 별 설정자산

(단위 : 조 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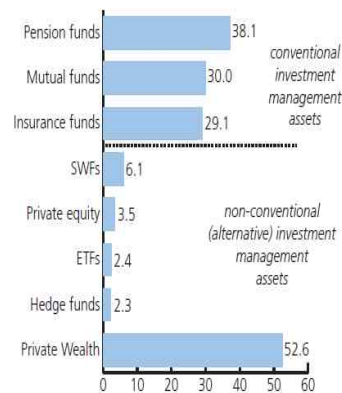


헤지펀드 설정자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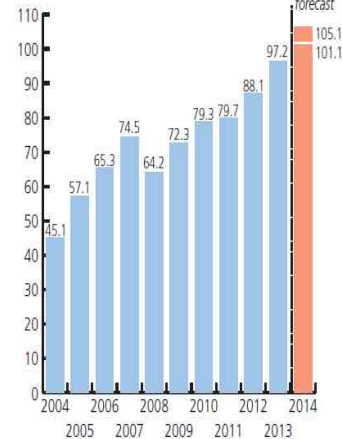
(단위 : 10억 달러)



assets under management, \$ trillion, end-2013



conventional assets under management, \$ trillion



¹ Around one-third of private wealth is incorporated in conventional

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흐름

<3. 파생상품시장 기능에 대한 인식제고>

자산운용과 파생상품

저금리 환경에서 수익률제고를 위해 파생상품 활용의 필요성 증가

뮤추얼펀드

- 6,809개 미국 펀드 조사
→ 1,838개(27%)가 파생상품 활용
- 대체투자 펀드 지속 증가
→ 헤지펀드 투자전략 증가



헤지펀드

-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매우 큼
- 영국 106개 샘플 펀드 자산 \$3,450억에 대해 파생상품 명목금액 \$22.2조(FCA)
(펀드자산의 64배)



보험·연금

- 세계 274개의 보험사 샘플조사('11년)
→ 미결제 포지션 \$1.4조
(보험 명목금액의 96%)

투자

투자촉진

- 외환·금리위험 헤지
- 자산위험 헤지
- 수익률 제고

자본시장

파생상품시장

국내시장의 발전방향

<3. 파생상품시장 기능에 대한 인식제고>

파생상품시장의 전망

◆ 파생상품시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

거시환경

- 저금리 지속으로 펀드 등의 간접투자상품 수요증가
- 선진국: 인구의 노령화로 노동생산성·성장률 감소
- 개발도상국: 선진국자본의 유입에 의한 성장
- 자본시장 개방의 진행으로 시장 확대

⇒ 금융혁신 지속

규제환경

-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는 시장 인프라에 관한 규제
- 시장안정성 강화를 통해 거래여건 개선
- 인프라구축 등 간접비용의 증가는 시장위축의 요인

⇒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에 대한 적응 필요

시장환경

- 시장간 연계성 강화로 위험 요소 증가
- 금리 변동에 따른 시장불확실성 증가
- 알고리즘거래 확대로 운용전략 다양화

⇒ 헤지수요 증가

파생상품시장

-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은 지속될 전망
 - 금융혁신 주도
 - 변화된 시장환경에 대한 위험관리수단 제공
- 새로운 시장질서에 대한 적응의 과제
 -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과 주도
 - 시장위축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필요

국내시장의 발전방향

<3. 파생상품시장 기능에 대한 인식제고>

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인식 제고방안

실증연구 확대

- 금융 · 파생상품의 기능에 대한 실증연구 장려
 - 금융과 파생상품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다양한 논쟁
 - 국내시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활성화 필요
- 시장의 각종 정책이슈에 대한 이론적 · 실증적 연구 지원

교육 · 홍보강화

- 파생상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· 홍보
- 업계와 언론 · 대중 간 미디어 소통 강화

파생상품 인식제고

시장관리

-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관리
 - ⇒ 파생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성 제고
- 다양한 상품의 상장을 통한 시장역할 제고

감사합니다